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 DB구축 및 가치평가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Establishment of standards to evaluate historical buildings in Suwon City

2013

연구진

연구책임 허 현 태 ●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연구원 박 수 민 ●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원
박 예 진 ●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국문 요약

근대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시기로서 우리나라의 개화기 이전 문화 및 사회적 변화를 통한 현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역사문화 환경은 사람에게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더없이 좋은 자원인 동시에 현대에 와서는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으로써 활용가치가 높다. 수원은 도시형성부터 근대를 거쳐 현대까지의 역사가 도시에 녹아있다. 이러한 역사적 기억들이 우리들의 관심 밖에서 하나둘 사라지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이어져야 하는 역사의 징검다리가 하나둘 없어지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수원의 200년 역사에서 근대화와 산업화시기를 겪은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DB구축을 위하여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의 현황을 살펴보고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를 통한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정의로서 기본적으로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장소성과 양식·기능을 포함하며 그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역사성을 지닌 건축물로 정의하였다. 또한 국내외 사례를 통하여 근현대 건축물의 활용방안 및 활용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용도 전환 및 부분보수를 통해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에는 2013년 7월 31일 기준으로 총 60종의 지정 및 등록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으며 국가 지정 7종, 경기도 지정 3종, 수원시 지정 6종 등 총 16종의 역사적 건축물이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수원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총 15종이 산재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지정된 사례는 총 7종으로 주로 화성과 관련된 건축물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의 여건과 선행연구를 통한 가치기준 분류를 통해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 가치평가 기준설정을 크게 역사적 가치(역사적 사실배경, 역사적 인물관련, 건축경과년도)·문화적 가치(전통성, 문화적 정체성, 예술성, 교육성)·건축적 가치

(학술성, 재료 및 재질, 기술 및 기법, 조형성)·사회적 가치(상징성 및 대표성, 희귀성, 공공성, 커뮤니티)·경제적 가치(미래 잠재적 기능, 용도변경, 관광상품)·도시경관 가치(장소성, 경관)로 설정하였으며, 전문가(건축, 도시계획, 역사, 문화, 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분야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역사적 가치, 건축적 가치, 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도시경관적 가치, 사회적 가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가치를 토대로 수원시 역사 건축물을 중에서 지정문화재와 미지정 문화재를 3개씩 표본으로 추출하여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였다. 이에 옛 수원시 청사,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아담스 기념관, 장순직 가옥, 옛 부국원, 유시환 가옥 순으로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가치 순위를 정할 수 있었다. 대체로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우수한 평가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미지정 문화재는 다소 순위가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서울대 농생대 부지는 그동안 가치평가가 저평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서울대 농생대 부지의 근현대 건축물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치평가 기준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예비평가(Pilot test) 결과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본의 크기와 세부적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역사문화 환경 중에서 건축물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유산으로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장소형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수원시에는 등록 문화재를 포함하여 근현대 건축문화 유산이 산재하여 있다. 등록되지 않았지만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으며, 향후 활용가치가 높은 자원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역사적 건축물 가치평가 기준을 활용한 수원시 건축문화 유산에 대한 DB구축 및 수원시 문화유산 발굴과 다양한 활용방안의 검토가 이어져야 한다.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절차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수행절차	5
제1장 서론	3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6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7
제2장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13
제1절 역사적 건축물의 개념	13
1. 역사적 건축물에 관한 연구	13
2. 역사적 건축물의 평가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15
3. 역사적 건축물을 통한 활용방안 및 사례 연구	17
제2절 건축문화유산 활용사례	19
1. 국외 사례	19
2. 국내 사례	29

제3장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 현황	35
제1절 문화재 지정된 역사적 건축물 현황	35
1. 수원시 문화재 지정 현황	35
제2절 문화재 미지정 역사적 건축물 현황	47
1. 건축물대장 조사	47
2. 문헌조사	54
제4장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의 가치평가 기준	83
제1절 가치평가의 설정 개요	83
제2절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 가치평가 기준 설정	84
1. 역사적 가치	87
2. 문화적 가치	89
3. 건축적 가치	91
4. 사회적 가치	93
5. 경제적 가치	94
6. 도시경관적 가치	96
제3절 가치평가 기준의 중요도 분석	97
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97
2. 설문지 구성	99
3. 가치평가 기준의 중요도	99
제4절 역사적 건축물 가치평가 기준 검증	107
1. 역사적 건축물 가치평가 기준 검증 개요	107
2. 역사적 건축물 평가대상 선정	107
3. 가치평가 검증 결과	109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21
제1절 결론	121

1.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 현황	121
2. 역사적 건축물 가치평가 기준 설정	122
제2절 정책적 제언	123
1.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 DB구축	123
2. 수원시 문화유산 발굴	124
3. 수원시 문화유산 활용방향	124
참고문헌	127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 보존가치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139
영문요약(Abstract)	133

표 목 차

<표 3-1> 수원시 문화재 중 역사적 건축물 현황	35
<표 3-2> 수원시 50년이상 경과된 일반건축물 현황	47
<표 3-3> 권선구 50년이상 경과된 일반건축물 현황	49
<표 3-4> 영통구 50년이상 경과된 일반건축물 현황	50
<표 3-5> 장안구 50년이상 경과된 일반건축물 현황	51
<표 3-6> 팔달구 50년이상 경과된 일반건축물 현황	52
<표 3-7> 수원시 50년이상 경과된 집합건축물 현황	53
<표 3-8> 팔달구 50년이상 경과된 집합건축물 현황	53
<표 3-9> 문헌조사 현황	54
<표 3-10>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 현황	55
<표 3-11> 권선구 역사적 건축물 현황	56
<표 3-12> 권선구 역사적 건축물 현황 상세	57
<표 3-13> 옛 수원농림학교(현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내 근대건축물 현황	61
<표 3-14> 영통구 역사적 건축물 현황	66
<표 3-15> 영통구 역사적 건축물 현황 상세	66
<표 3-16> 장안구 역사적 건축물 현황	67
<표 3-17> 장안구 역사적 건축물 현황 상세	67
<표 3-18> 팔달구 역사적 건축물 현황	72
<표 3-19> 팔달구 역사적 건축물 현황 상세	72
<표 4-1> 선행연구를 통한 가치기준 분류	85
<표 4-2>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 가치평가 기준설정	86
<표 4-3> 역사적 가치평가의 세부내용	87
<표 4-4> 문화적 가치평가의 세부내용	89
<표 4-5> 건축적 가치평가의 세부내용	91
<표 4-6> 사회적 가치평가의 세부내용	93

<표 4-7> 경제적 가치평가의 세부내용	95
<표 4-8> 경제적 가치평가의 세부내용	96
<표 4-9> 설문응답의 일반개요	97
<표 4-10> 분야별 전문가	98
<표 4-11> 전문가의 연령	98
<표 4-12> 전문가의 전문분야 근무경력	98
<표 4-13> 전문가의 역사적 건축물 관련 업무경력	99
<표 4-14> 쌍대비교 예시	99
<표 4-15> 가치평가 기준의 중요도	100
<표 4-16> 역사적 가치의 중요도	101
<표 4-17> 문화적 가치의 중요도	102
<표 4-18> 건축적 가치의 중요도	103
<표 4-19> 사회적 가치의 중요도	103
<표 4-20> 경제적 가치의 중요도	104
<표 4-21> 도시경관적 가치의 중요도	105
<표 4-22> 가치평가 기준 설정 및 중요도 (종합)	106
<표 4-23> 파일럿 평가의 일반개요	107
<표 4-24> 역사적 건축물 평가 표본	108
<표 4-25> 역사적 가치 평가 결과	110
<표 4-26> 문화적 가치 평가 결과	111
<표 4-27> 건축적 가치 평가 결과	113
<표 4-28> 사회적 가치 평가 결과	114
<표 4-29> 경제적 가치 평가 결과	116
<표 4-30> 도시관광적 가치 평가 결과	117
<표 4-31> 가치평가 파일럿 평가 결과	118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	9
<그림 3-1> 수원시 지정 및 등록문화재 현황	36
<그림 3-2> 수원 팔달문 전경	37
<그림 3-3> 수원 화서문 전경	37
<그림 3-4> 수원 방화수류정 전경	38
<그림 3-5> 수원 서북공심돈 전경	39
<그림 3-6> 수원 화성 전경	39
<그림 3-7> 수원 화령전 내 운한각 전경	40
<그림 3-8> 수원 화성행궁 전경	40
<그림 3-9> 수원 광주이씨 월곡택 전경	41
<그림 3-10> 아담스기념관 전경	42
<그림 3-11> 수원향교 전경	43
<그림 3-12> 향미정 전경	44
<그림 3-13> 거북산당 전경	44
<그림 3-14> 버드네 산제당 전경	45
<그림 3-15> 미륵당 전경	45
<그림 3-16> 옛 수원문화원 전경	45
<그림 3-17> 옛 부국원 전경	46
<그림 3-18> 수원시 50년이상 경과된 일반건축물 분포 현황	48
<그림 3-19> 유시환 가옥 위치	58
<그림 3-20> 유시환 가옥 평면도	59
<그림 3-21> 유시환 가옥 전경	59
<그림 3-22> 농업진흥청 종합분석실 위치	59
<그림 3-23> 1931년경 농사시험장	60
<그림 3-24> 농업진흥청 종합분석실	60
<그림 3-25> 옛 수원농림학교 위치	60

<그림 3-26> 수원농림학교 모습 (1940년대)	62
<그림 3-27> 수원농림학교 현재 모습	62
<그림 3-28> 서울대 농생대 강당 (1957)	63
<그림 3-29> 아세아시멘트 전경	63
<그림 3-30> 아세아시멘트 위치	64
<그림 3-31> 용화사 대웅전 전경	64
<그림 3-32> 수원 용화사 위치	65
<그림 3-33> 이윤재 가옥 위치	68
<그림 3-34> 이윤재 가옥 전경	68
<그림 3-35> 이윤재 가옥 평면도	68
<그림 3-36> 이수래 가옥 위치	69
<그림 3-37> 이수래 가옥 전경	69
<그림 3-38> 이수래 가옥 평면도	69
<그림 3-39> 청련암 위치도	70
<그림 3-40> 청련암 극락보전	71
<그림 3-41> 청련암 독성각	71
<그림 3-42> 청련암 칠성각	71
<그림 3-43> 장준식 가옥 위치도	73
<그림 3-44> 장준식 가옥 전경	74
<그림 3-45> 영화 포스터	74
<그림 3-46> 장준식 가옥 평면도	74
<그림 3-47> 옛 수원시청사 위치	75
<그림 3-48> 옛 수원시청사 전경	75
<그림 3-49> 옛 수원 상업학교 본관 위치	76
<그림 3-50> 옛 수원상업학교 본관 전경	76
<그림 3-51> 수원포교당 위치도	77
<그림 3-52> 수원포교당 전경	77
<그림 3-53> 봉녕사 위치도	77
<그림 3-54> 봉녕사 약사전 전경	77

<그림 3-55> 팔달사 위치도	78
<그림 3-56> 팔달사 용화전 전경	78
<그림 3-57> 묘수사 위치도	79
<그림 3-58> 묘수사 영산보전 전경	79
<그림 3-59> 농천교회 본당 전경	79
<그림 3-60> 농천교회 위치도	80
<그림 4-1> 역사적 건축물의 가치평가 설정의 개념	83
<그림 4-2> 평가대상 및 위치도	10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역사문화 환경은 시민들의 삶과 도시에 중요한 역할

수원시는 드물게 도시형성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 화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명확하게 되어있다. 수원화성이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화성 복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 단적인 예가 200년 전의 역사문화를 복원하기 위하여 근대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시설을 철거하는 일이라 하겠다.

한 장소에서 성장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하는 개인에게 있어서 역사문화 환경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정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동일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강림 외, 2009). 인간은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과 공존함으로써 즐거움과 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삶을 더욱 풍성하게 꾸려나간다. 공존한다는 의미는 개인들이 이러한 물리적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삶의 의미를 새겨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문화 환경은 사람에게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더없이 좋은 자원인 동시에 현대에 와서는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다. 우리의 역사문화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2) 비등록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활용연구 필요

근대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지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시기로서, 우리나라의 개화기 이전 문화 및 사회적 변화를 통한 현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의 가치에 대해 반정화 외(2009)의 연구에서는 서울사대문안의 근대문화에 대하여 크게 건축사적 가치, 역사적 가치, 문화예술적 가치, 그리고 종교 및 교육적 측면에 대한 역사들이 남아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가치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근대문화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에 대해 김정동(1995)은 다음과 같이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 의식 속에 기왓장 없혀 있는 전통건축물 외에는 모두 다 값없는 건축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건축가들 스스로 그렇다. 개항 이후사, 해방 전후사는 관심사 외다. 문화재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조차 마찬가지이다.’

수원에서는 심지어 기왓장이 없혀 있지만 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하는 건물이 수난을 받았다. 행궁동에 위치했던 대한방직 설립자 설경동씨 가옥이 검은 아스팔트로 덮인 주차장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2012년 가을 포크레인의 손짓에 사라졌다. 일부 근대문화유산들은 우리의 현재 역사와 가까운 시기에 있으나,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들에 비해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아 생기는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수원은 약 200년의 역사에서 근대화와 산업화시기를 겪은 역사가 도시에 녹아있다. 이러한 역사적 기억들이 우리들의 관심 밖에서 하나둘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잇고 있는 징검다리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커다란 강을 한 번에 건너갈 수 없듯이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역사의 징검다리를 하나둘 걸어내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당장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억, 그리고 그분들의 부모들에 대한 기억들이 살아있는 도시가 인문학도시의 근간을 이룰 것이다.

등록문화재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들과 부모의 부모들이 지내온 삶의 가치가 묻어 있는 건축문화자원이 우리의 주변에 적지 않게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역사적 건축유산이 부동산 개발 및 새로운 필요성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은 우

리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등록되지 못한 문화자원에 대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3)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 설정 필요

수원은 정조부터 이어져 오는 역사도시로 인식하는데 있어 화성과 행궁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원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화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임을 부정할 수 없으나, 너무나 커다란 빛에 의해 주변의 조금 작은 크기의 빛들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수원은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교통의 중심지이자 경기남부 상업의 중심지로서 역동적으로 달리는 기관차와 같이 근현대를 이어온 도시이었다. 하지만 수원의 역사에서 근현대문화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근현대 문화의 인식부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의 부족에 원인이 있겠다.

서울시는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민들의 공모와 전문가들의 의견조율을 통한 미래유산 찾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서울연구원,2013), 등록되지 않는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사업이 시민들의 참여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에서 우리의 근현대 역사에서 중요한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이 시민들과 함께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라며, 우선적으로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사라질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시민들의 삶에 대한 기억들이 새겨진 근현대 문화유산의 발굴과 활용을 위하여 역사적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역사적 건축물들에 대한 DB구축을 위하여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의 현황을 살펴보고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원시의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가 2000년에 이루어졌으나, 부동산개발에 의하여 상당부분 없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수원시 문화재 지정현황과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건축물들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역사적 건축물의 가치평가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보존하여야 하는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분야마다 중요시하는 가치가 다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가치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분야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셋째는 역사적 건축물 가치평가 기준의 작동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수원시의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가치평가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역사적 건축물의 DB를 실제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DB구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역사적 건축물에 대하여 공공재원 투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을 염두하고 이루어졌다.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시·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현재로부터 50년 이전을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역사문화유산의 가치가 있을 경우 연구의 범위로 포함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2) 내용적 범위

역사문화유산에는 다양한 문화재가 포함되나, 이 연구에서는 역사적 건축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현황에 대한 문헌조사는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와 현재까지 작성된 7개 마을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자료를 도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역사적 건축물 가치설정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가치설정 기준은 역사, 문화, 건축, 사회, 경제, 도시경관적 가치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각 분야별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역사적 건축물 가치평가 기준을 역사적 건축물 표본 평가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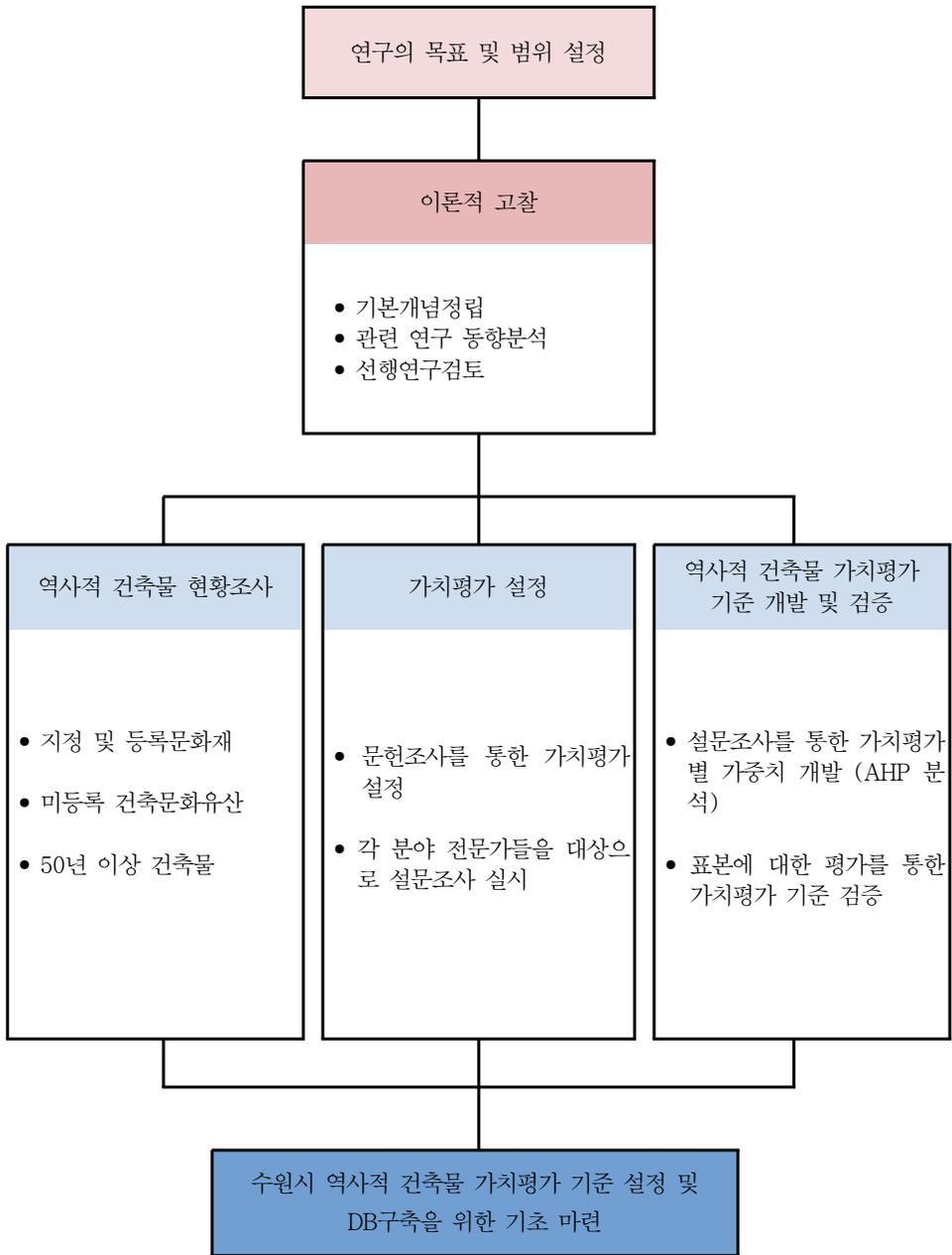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하여 역사적 건축물의 개념, 가치평가 기준의 설정과 수원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사례조사를 통하여 국내외에서 역사적 건축물의 활용현황을 살펴보았다.

셋째, 역사적 건축물의 가치평가의 가중치 설정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사용한 방법은 T.Saaty에 의해 개발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으로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쌍대비교에 의한 판단을 통하여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다. AHP는 다수의 속성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으로 의사결정요소들의 속성과 그 측정 척도가 다양한 다기준 의사결정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의사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순위화를 시키고, 그 가중치를 비율척도로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 할 수 있어 이 연구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건축물 가치평가와 가중치에 따른 가치평가의 검증을 위하여 수원시 지역의 표본을 추출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자는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

제2장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제1절 역사적 건축물의 개념

제2절 건축문화유산 활용 사례

제2장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제1절 역사적 건축물의 개념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및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는 2001년 7월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되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0년 이후의 연구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① 역사적 건축물에 관한 측면, ② 역사적 건축물의 평가지표 설정 측면, ③ 역사적 건축물을 통한 활용 방안 및 사례 측면 등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1. 역사적 건축물에 관한 연구

1) 역사적 건축물의 정의

역사적 건축물의 의미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김지민(1998)은 넓은 의미로 1차 세계대전 아직 독창적인 근대건축이 미국에 정착하기 전의 모든 건물을 지칭하며, 과거 인디언 원주민 또는 이민 초기의 주택이 갖는 회귀적인 건축물이 아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주로 주거, 상업 그리고 공공적 측면에서 건립한 건물을 일컫는다고 역사적 건축물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이상흠·김진균(2005)는 시대적 상황과 정신에 따라 이어져서 현재에도 강한 역사성과 장소성을 가지는 건물들을 말하며 자체적으로 강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박종혜·신경주(2013)는 역사적 건축물에 대해 시간성, 장소성, 기능성을 포함한 역사적, 건축적, 상징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장소성과 건축적 양식·기능을 포함하며 그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역사성을 지닌 건축물이라 정의하겠다.

2)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을 위한 방법

역사적 건축물에 있어 '보존'은 매우 중요하다. 보존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 역사적 건축물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보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김'을 뜻하는 것으로 그 당시의 그 상태 그 대로 잘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미국의 역사적 건축물 보존학자 James M. Fitch(1982)는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위해 건축물의 구조체에 가하는 정도에 따라 약한것부터 강한 것 순으로 ① Preservation(보존), ② Restoration(복원), ③ Conservation and Consolidation(보존과 합병), ④ Reconstitution(재구성), ⑤ Adaptive Reuse(건물전용), ⑥ Reconstruction(재건), ⑦ Replication(복제)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러한 보존의 의미에 따라 보존방법에 대해 성기민·민현준(2007)은 모든 건축물에 역사적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건축물 보존방법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가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원형그대로를 유지해 내는 것(복원)과 보존에 있어 구조를 변경하고 원형의 일부를 응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경우(재생)을 구분하였다. 김동식(2006)은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관련하여 교토의 사례를 통해 역사·문화·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지역의 역사적 경관과 풍경에 중점을 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보존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보존은 문화재의 원형을 현상적으로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상물이 지닌 가치를 유지·활용하는 측면에서 모색해야 하는데 역사적 건축물이 지닌 역사적·건축적인 가치를 보호하거나 활용하는데 있어 전제되어야 할 첫 번째 단계가 역사적 건축물 전반에 대한 다면적인 가치 평가와 역사적·건축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건축물을 목록화 하는 작업이다(박근수, 2003) 또한 보존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 기능의 유지와 전환, 성능의 향상·환경으로의 배려, 의장 존중과 새로운 가치의 창조, 총체의 유지, 보존과 진실성, 시설의 신축과 증축, 이축의 구분이 필요하다(문화재청, 2006).

2. 역사적 건축물의 평가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1) 선행연구조사를 통한 평가지표 설정

정이순·정량부(2005)는 선행연구의 종합적인 재구성을 위한 선행연구들의 용어를 통합시키고자 설문조사를 하고 사례연구를 통한 선정기준 분석과 적용을 통해 역사적 가치, 상징적 가치, 건축적 가치, 효용가치, 경제적 가치, 지역적 가치, 학술적 가치로 선정하였다. 홍순연·김기수(2008)는 20세기 초 역사적·예술적 가치에서 20세기 후반 정신적·지역적·사회적으로 확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건축물의 커뮤니티적 가치에 주목, 문화·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장소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김상조 외(2011)는 역사·문화·사회적 사건과 인물, 역사발전의 증거가 되는 건축물을 역사적 가치로 구분하였는데, 건축물에 나타나 시대에 따른 양식(형태와 의장), 지역적 성향이 다른 양식의 변형, 재배치(학술성), 건축사 및 양식을 이해하는데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축물(구조 및 기술), 시대에 따라 발전되고 표현되는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는 건축물(재료와 재질)을 건축적 가치로 보았다. 또한 공적 성격을 가진 건축물(공공성)과 지역문화의 배경이 되어 그 가치가 인정되는 건축물, 지역문화의 발전, 진흥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축물,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지역성으로 담고 상징적 건축물과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건축물(문화성) 역사문화의 체험 및 교육적 가치가 인정되는 건축물(체험, 교육)을 사회적 가치로 분류하였으며, 건축물의 경제성·효용성·유용성·실용성·관광 상품성을 분류하여 경제적 가치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시대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장소(장소성),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공간과 형태와의 상호맥락적 관계(입지와 환경) 및 주변 역사경관배경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역사경관 배경)인 도시맥락적 가치로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2) 사례조사를 통한 평가지표 설정

민현식(2008)은 역사도시축, 도심지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한 면적 자원보전, 네트워크를 통해 점·선·면의 종합적인 접근, 학술적·역사적·예술적 가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가운데 향토문화상 보존할 가치, 건설 수 50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긴급조치 필요하거나 50년이상 경과된 것으로 제안하였다. 박철희(2012)는 미국의 민간비영리조직(NPO)의 사례를 통하여 건축물의 중요성, 필요도, 근린지구에 있어서의 파급효과 등을 평가지표로 삼았다. 김경현·김세용(2012)은 일본 요코하마와 미국의 보스턴 사례의 시사점을 통한 역사적, 경관적, 역사문화공간적 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3) 문화재 등록 건축물들을 통한 평가지표 설정

김동식(2001)은 2001년 4월까지의 근대건축문화재를 검토 후 공통적 지정 사유를 분석하여 역사적 사건 장소, 인물, 건축양식적 가치 설정(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및 건축양식적 특성)을 제안하였으며, 김동식·김태영(2002)은 문화재관리대장을 근거로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 및 장소, 건축사 및 양식으로 분류하였다. 박용철(2005)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 한국 문화의 특색이 현저한 것,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 의장적으로 우수한 것,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 토목, 구조적 가치가 현저한 것, 산업시설물로서 가치가 현저한 것으로 평가지표를 삼았으며, 이주형·장석하(2006)은 시도별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현황을 통계 수치 분석을 토대로 역사적, 조형적, 문화적으로 우수한 건축물로 평가지표를 삼았다.

3. 역사적 건축물을 통한 활용방안 및 사례 연구

역사적 건축물을 통한 여러 활용사례들은 또한 보존의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해 황선옥·김정신(2005)은 현재와 과거의 역사는 보존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속에서 세대를 거듭하며 그 가치를 더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과거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 역사를 대변하는 근·현대 건축물 역시 새로운 목적에 맞는 생명을 불어넣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방안으로 근·현대 건축물의 재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정호(2010)는 역사적 건축물의 활용방안을 5가지로 구분·제시하였는데 건물의 용도를 바꾸지 않고 기존의 사용을 계속하는 계속형 활용, 당초의 용도를 변화시켜 다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능을 한번으로 제한하지 않고 여러 번 전용하여 사용하는 전용형 활용,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 있지 않던 건물과 여러 가지 용도변경을 거쳐 온 건물을 새롭게 건립 당시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활형 활용, 일시적인 행사 및 공연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건물이 아름답고, 집회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싶은 욕구들이 높은 것을 반영하여 다양한 집단 활동들이 개최되는 장소인 이벤트형 활용, 건물의 모두 또는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중요문화재나 자치단체에 의한 지정문화재에 강구되는 방법으로 공개형 활용으로 구분짓고 있다. 김정동·이상희(2011)는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대전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① 역사자료 보존, ② 상징성 부여, ③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이미지 마케팅, ④ 가로환경과 근대건축물의 공간별 활용을 제안하였다.

일본의 메이지부터 쇼와 초기의 역사적 건축물과 토목 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모지(북큐슈시의 7개 구 중 하나)와 오타루(홋카이도 서부 이시가리만에 위치한 시)의 경우 오타루에서는 운하의 보존운동을 계기로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활용을 통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됐으며 모지시는 JR모지항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활용하여 마을 공유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등 지역의 활성화를 촉진시켰다. 또한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하기 위해 기능을 전환시킴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의 활용 예를 볼 수

있다. 지하 증축이라는 오리지널 건물을 존중하는 계획과 중정의 유리 지붕을 이용한 아트리움은 현대적 표현이 낳은 공간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으며 이는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 가치를 테마로서 활용한 예로 신·구의 장의 조화와 대비를 통해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낳고, 긴장감 넘치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 건축물의 활용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데 예를 들면 일본의 수도배수탑을 도서관 기능과 연극 연습관으로서 재생시킨 ‘나고야시 연극 연습관 아크테논’과 ‘가나자와 시민예술마을’과 같이 창고군을 예술 활동의 거점으로서 활용하면서 교류의 장소와 활동의 장소로 지역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문화재청, 2006).

제2절 건축문화유산 활용사례

1. 국외 사례

1) 일본

(1) 삿포로 맥주 공장

① 건물 개요

홋카이도 개발 위원회가 메이지 시대에(1876)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시에 설립한 카이타쿠시 맥주 양조장으로 붉은색 벽돌 건물을 띠고 있는 서양식 건축양식으로 메이지 시대의 영향이 남아 있는 중요한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

② 가치 유형 : 역사적 가치 · 산업유산

1876년 북해도에 처음 맥주공장을 설립하여 일본의 대표적 맥주산업 을 이끌며 특히 라거(Lager)맥주의 본고장으로 삿포로 지역을 널리 알린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③ 보존 현황 및 방향

외관의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 리모델링을 통한 보존으로 삿포로 맥주공장의 외형적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내부에서는 맥주 박물관을 운영하여 견학생들과 관람객에게 삿포로 맥주의 전통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복합상업시설을 통해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④ 활용 현황

과거 맥주공장 시설을 박물관으로 전시하며 맥주 공장 견학 및 맥주 시음 체험을 하며 삿포로 지역에 삿포로 맥주 체험을 하기 위해 오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쇼핑 및 위락시설, 레스토랑, 호텔 등 160여개의 상점과 시설이 모인 초대형 복합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⑤ 활용 방향

과거 맥주공장을 유지하며 박물관으로 활용한 관광자원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가 있다. 샛포로 맥주 공장은 산업유산으로 상업시설뿐 아니라 창의적 활동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기능을 확대한다면 지역주민과 관광산업에 더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도쿄 도준카이

① 건물 개요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 건설된 1927년 바우하우스식 도준카이 아오야마 아파트로 도쿄 시부야 구에 위치해 있으며 2005년 모리 건설에 의한 도쿄 도시 개발로 재개발된 구역이다.

② 가치 유형 : 건축사, 양식적, 역사적 가치

동경의 중심가인 오모테산도의 1927년에 건립된 도준칸 집합시설(도준카이 아파트)로 1900년대에 생소한 콘크리트 건물이라는 집합시설로 일본 건축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다.

③ 보존 현황 및 방법

1968년 재개발 논의로 의해 도준칸이라는 집합주거 시설을 지역 재개발에 의해 기존의 주거공간이 갖는 공간적 특성을 살려 1998년 안도 다다오에게 설계권을 의뢰하여 외관의 형식을 현대적 의미로 되살려 상업적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계획을 세웠다(홍순연·김기수, 2008). 또한 1920년 메이지신궁의 창건과 관련하여 정면을 참배길로 조성하면서 심은 가로수 느티나무의 매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오히려 건물 높이를 23.3m로 제한하는 등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고자 노력하였다. 도준카이의 옛 모습을 지키고자 1927년 도준카이 아파트 치수와 재료들을 그대로 재현하였으며, 갤러리와 소품상점이 입주하여 도준카이 아파트의 기억을 재현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도준카이의 재개발은 역사적 거리

계승을 위한 장소와 건축이 갖는 역사와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재현함과 동시에 다양한 카테고리를 크로스오버 하였다.

이렇게 재탄생된 오모테산도 힐즈의 ‘미디어 쉽’과 거리는 ‘도쿄의 상젤리제 거리’, 디자이너와 건축학도들에게는 ‘길위의 교과서’로 불리며 오모테산도에 250m의 길이로 세워졌다. 105개가 넘는 상점과 40호의 주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시실의 면적은 33.916㎡이고 점포의 면적은 9.959㎡으로 활용되고 있다.

⑤ 활용 방향

공간적 특성을 살려 현대적 상업공간으로의 재탄생한 대표적 사례로 지역의 활성화를 일으키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 세련된 공간답게 미술, 전시 및 거리 음악회, 사진 갤러리 등을 공연 기획함으로써 거리를 좀 더 풍성하게 가꾸는 것 또한 가능하겠다.

(3) 오사카 공회당

① 건물 개요

오사카시 중앙 공회당은 1916년부터 1918년 사이에 빨간 벽돌로 지어진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로 나카노시마 지역의 상징이다.

② 가치 유형 : 원형보존 및 향토성의 가치

다이쇼 7년에 완성된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메이지 시대를 반영하는 대리석 건물이다.

③ 보존 현황 및 방법

크게는 원형보존 및 구조보강, 출입구 보수를 통해 보존하였으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물 내·외부를 수리하였다. 특히 스테인드 글라스로 새로 바뀌어 일본 신화에 따른 우주의 창조를 묘사한 천정 그림 ‘텐치 카이브야쿠’가 원래의 선명한 색으로 복원되어 예전의 공회당의 모습을 한층 더 살려주고 있다.

④ 활용 현황

2002년 구조보강 이후 공회당의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개의 콘서트홀과 1층은 전문레스토랑으로 활용되고 있다.

⑤ 활용 방향

오사카 공회당은 일본의 대표적인 유럽식 양식건물로서 오사카의 관광명소 중 하나이다. 현재는 2개의 콘서트홀과 레스토랑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역의 유치원, 학교, 관공서를 대상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주최하여 지역의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또한 공회당의 이미지와 맞는 지식콘서트 등 지역 토론회 장으로 활용가능하다.

2) 중국

(1) 홍콩 머레이 하우스

① 건물 개요

영국의 고풍스러운 멋을 간직한 석조건물로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식민지 유산이다. 영국 식민지 시절 센트럴 지역에 건축되었으며 일본 강점기에 중앙사령부 건물로 쓰여졌다.

② 가치 유형 : 역사적 가치 및 이전 후 복제 복원가치

1884년 센트럴에 최초 건립된 이래 영국, 일본, 홍콩 정부의 핵심 건물로 식민지 홍콩을 상징하던 곳으로 1983년 중국 반환의 분위기가 고조되던 시기 머레이 하우스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중국은행을 건설한다는 발표로 인해 홍콩 시민들에게 중국인으로 남을 것인지, 이민을 갈 것인지를 선택하게 만든 첫 번째 사건이다.

③ 보존 현황 및 방법

홍콩 시민 사회는 역사적 건물을 보존해야한다는 의견과 중국의 신민으로서

헐어버려야 한다는 팽팽한 대립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홍콩정부는 머레이 하우스를 해체하는 방안으로 결정하였는데, 대신 벽돌 상태로 보관하여 다른 지역에 복원하도록 하였다. 벽돌마다 고유 번호가 매겨진 채 철거된 머레이 하우스는 철거 후 6년만에 홍콩 스탠리 마켓 주변의 상업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④ 활용 현황

철거 이후 이전된 머레이 하우스는 화교자본에 의해 스탠리 마켓 주변의 우아한 레스토랑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부재 복원을 통한 1884년대의 느낌을 살리면서 경관과 어울려져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여 홍콩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게 되었다.

⑤ 활용 방향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식민지 유산이지만 철거하지 않고 식민지 유산까지도 복원하고 활용했다는 점은 우수히 평가되며 석조 건물의 웅장함을 살린 건물 전체를 레스토랑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다.

(2) 상해 신텐지

① 건물 개요

중국의 전통적인 스쿠먼 양식을 개조하여 만든 곳으로 2001년 중국의 화이하이루 남쪽, 황피난루와 마당루 사이에 위치해 있다. 미국 SOM 자문사의 벤자민 우드와 싱가포르 르젠설계사무소가 리모델링 하였다.

② 가치 유형 : 일부양식을 이용한 신축도시의 상징성¹⁾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뜻으로 신텐지 옆에 위치한 제1차 중국 공산당대회

1) 홍순연·김기수, 2008, “부산지역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사례에 나타난 특성에 관한 고찰”, 10(3):35-46.

개최지인 ‘중공일대회’에서 따온 명칭이다. 프랑스 조계지였던 타이창루화 싱예루 일대의 52만㎡ 스쿠먼의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운 땅을 조성한 사례이다.

③ 보존 현황 및 방법

홍콩 루이안 그룹이 투자하고 1999년 착공하여 2001년에 쇼핑과 문화의 거리로 재탄생 되었다. 신톈지 거리에 스쿠먼 농탕 양식을 재현한 ‘우리샹(屋里厢)’ 박물관을 오픈하여 상하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김윤희, 2008),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고 새롭게 개발된 성공한 표상으로 이미지화 및 어메니티화 되었다.

④ 활용 현황

신·구가 만나는 독특한 스타일의 지역으로 역사 건축물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기능을 더한 신톈지에 상하이 사람들은 신톈지에 오지 않으면 상하이에 왔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상하이의 상징성 되었다. 또한 역사, 문화, 여행, 식사, 오락, 여가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게 활용하고 이와함께 외국 계열의 레스토랑이 준비하게 들어서면서 상하이의 신흥 부호들과 거주 외국인들이 몰리는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였다.

⑤ 활용 방향

신톈지는 뉴욕의 소호, 일본의 룩본기 힐 등을 축약해 놓은 스타일로 도시의 랜드마크적 공간을 창출하고 있으나 기존의 건축물이 갖는 물질적 가치보다 비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신톈지에 도시 축제 및 문화, 역사적 이벤트를 함께 조성하면 훨씬 더 활기 넘치는 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3) 미국

(1) 샌프란시스코 페리빌딩

① 건물 개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선착장에 1898년 건축가 에이 페이지 브라운(A. Page Brown)에 의해 준공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내 유럽건축 양식의 특징과 시대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② 가치 유형 : 기존의 건축구조를 복원, 역사적 가치

페리빌딩은 유럽식 건축 양식으로 런던의 채어링크로스역(Charing Cross Station)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통행량이 많은 수송 터미널이었다. 1950년대 이후 오클랜드, 소살리토 등으로 가는 페리가 줄어들며 그 앞에 고가도로가 들어섰으나 1992년 지진으로 고가도로가 무너져 철거되었다. 페리빌딩의 상징인 건물 꼭대기 시계탑은 12세기 스페인 세비야의 지랄다(Giralda)종탑을 본 따 제작되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지역방송국 KBWA-FM(95.7)은 이 시계탑을 기준으로 시간을 안내하고 있다.

③ 보존 현황 및 방법

샌프란시스코 지진으로 소실된 건축물을 기존의 아케이드와 철골구조 물을 이용하여 주변의 수변경관에 마켓과 전망시설 등을 추가한 재개발을 하였으며 기존의 시설과 기능을 재활용 하였다(홍순연·김기수, 2008).

④ 활용 현황

2004년 리노베이션 이후 터미널 대합실과 프라자로 활용되고 있으며, 고급식당가와 사무실에 들어섰다. 특히 페리빌딩의 마켓플레이스는 야채, 고기, 치즈, 올리브유 등 상점들이 즐비하며 깔끔한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유입하고 있다.

⑤ 활용 방향

기존의 건축물을 재활용하여 보존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상권과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 페리빌딩 주변의 상권과 연계하고 광장주변을 활용하여 공연 및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수많은 이벤트 활용이 가능하겠다.

4) 유럽

(1)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

① 건물 개요

프랑스 파리, 세느 강 좌안(west bank)에 위치해 있으며, 1908년 최고재판소 오르세궁이 전소 후 세계 만국 박람회(Universal Exhibition)을 위해 건축된 오르세 기차역으로, 당시로서 현대적인 건축물로 건물내부 시설 역시 최신형으로 설치되어 화제가 되었으며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되었다.

② 가치 유형 : 건축적 · 양식적 가치

기차역사의 주요구조 7개의 원형천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미술관으로 활용되었다.

③ 보존 현황 및 방법

1978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역사 기념물(historical Monument)로 지정되었으며, 시위위원회를 조직하여 역 건물을 활용하면서 기존의 건축물에 프랑스인의 전통과 창조를 잘 결합한 전시기능의 미술관을 재구성 하였다.

④ 활용 현황

오르세 역 자체가 19세기의 미술품으로 오르세 미술관은 19세기 미술품들의 전시장이다. 미술관 2층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19세기와 20세기의 건축양식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⑤ 활용 방향

미술관 관련된 시민대상 미술교육 또는 그림과 관련된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위하여 해설해주는 프로그램 양성도 가능하며 지역 주민과 연계하여 해설가 양성도 가능하다.

(2) 독일 졸페어라인 광산

① 건물 개요

독일 루우르 지역(Ruhrgebiet) 전체적으로 졸페어라인¹로 명명하였으며 산업시대의 기능주의 미학으로 불리며 근대산업의 원동력이었던 석탄산업과 근대 건축운동의 표본이 되었다.

② 가치 유형 : 산업유산에서 문화유산의 가치

1851년 채굴시작으로 140년간의 광부들의 삶을 담은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회상시킬 수 있는 증거로서 카텐베르크(Katenberg), 슈토펜베르크(Stoppenberg), 쇼네벡(Schonnebeck) 지역에 펼쳐진 가장 큰 광산으로 에센(Essen)북부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③ 보존 현황 및 방법

산업문화재 보존·문화역사재단(Stiftung Industrie-denkmalpflege und Geschichtskultur)과 같은 완강한 문화재 보호 단체와 엠셔 국제 건축박람회(IBA, Internationale Bauausstellung Emscher Park) 덕분에 산업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재인식됨으로써 2001년 12월 14일 헬싱키에서 유네스코(UNESCO)의 세계문화유산 위원회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하였다. 보존 방식으로서는 광산갱구시설 등 산업 및 건축사적으로 그 시대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고 당시 열악했던 광부들의 노동환경을 회상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보존, 유지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존공간에 담는 방식을 선택하였다(김홍기, 2007).

④ 활용 현황

석탄을 나르던 루트를 따라 산업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건물들은 디자이너들의 사무실과 예술 스튜디오, 전시장과 레스토랑으로 개조하여 산업유산의 건축물 속에 예술을 담아내어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내 가고 있으며 또한 경영디자인학교와 공연장, 무용연습실이 유치되어 활용되고 있다.

2. 국내 사례

(1) 명동예술극장

① 건물 개요

서울시 중구 명동1가 54번지 소재하고 있으며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지하2층, 지상6층, 대지면적 540평, 건축면적 389.18평, 연면적 1497.44평으로 1936년 명치좌로 개관하였다.

② 가치 유형 : 역사적·문화적 가치

일본영화를 상영했던 곳으로 해방이후 800여 석의 극장으로 용도·변경되었고 국내 근대건축물의 보존운동으로 복원된 점에서 가치가 큰 건축물이다.

③ 보존 현황 및 방법

1975년 업무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 전면 수리와 증·개축을 실시하여 2003년 국립극장 사용 당시의 형태로 복원계획을 실시, 복원설계는 2005년 문화관광부 주관의 공모설계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외형 복원공사에서 남쪽(정면)과 동쪽(우측면) 외벽은 그대로 보존하였으며, 계단실과 출입구 상부 장식은 해체 복원, 훼손된 부분은 각종 자료를 통해 복원되었다.

④ 활용 현황

1948년부터 1961년까지 서울시 공관으로 활용되었으며, 1957년부터 국립극장으로 사용되어 1973년 국립극장이 남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명동 예술인의 명소로 활용되었다. 국립극장 이전 후, 대한투자금융이 매입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다 2003년 12월 문화관광부가 구 명동국립극장을 매입하여 명동예술극장으로 활용하면서 과거의 예술적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문화재청, 2006).

(2) 대구 효원동 조양회관

① 건물 개요

1922년 대구지역 청년 민족계몽운동을 위해 세워진 교육회관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달성공원 앞에 위치한 화강석으로 기초를 다진 서양식 붉은 벽돌건물이다. 500평 대지 위에 2층 건물로 ‘아침 해가 비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일제 강점기 건축물이다.

② 가치 유형 : 역사적, 건축적 가치

청년들의 민족계몽운동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대구구락부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건축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으로 화강석의 기반을 다진 탄탄하고 단아한 건축형태와 기둥 사이의 반원형 아치, 모든 창문을 화강석으로 다듬은 인방석(引放石)을 연속으로 설치하는 등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다.

③ 보존 현황 및 방법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1930년대 후반부터 대구부립도서관, 일본보급부대, 한민당사무실, 유격대 병영 등으로 사용되었다. 1950년 원화중학교를 설립, 항일민족운동을 펼쳤던 서상일의 뜻을 이어 다시 조양회관이라고 명명하고, 도서관, 교무실, 양호실로 사용하였다. 그 후 1984년 원화여자중·고등학교가 옮겨감에 따라 달성공원에서 오늘날의 망우공원 앞으로 이전하면서 원형 그대로 복원하였다.

④ 활용 현황

광복회관(光復會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항일독립운동 사료 전시실로 활용되고 있다.

⑤ 활용 방향

대구의 청년 민족계몽운동을 불 피운 뜻 깊은 장소이기에 그 가치는 충분하다. 현재 사료 전시실로 이용되고 있지만 지역의 몇몇 기념관들과 연계시켜 체

험 학습은 물론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역사 학습 강좌나 역사 관련 프로그램 활용도 가능할 수 있다.

(3) 일본18은행 인천지점

① 건물 개요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 2가 24-1번지 외 1필지 위치하고 있으며 1890년에 준공된 대한제국 시대의 유적건축물이다.

② 가치 유형 : 역사·건축적 가치

1890년 10월 한국의 금융계를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진 일본18은행 인천지점은 서양식 건축기법과 일본식 기와 및 모임지붕의 건축물로서 고전적 장식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절충식 양식 단층 건물이다. 크기 469.4㎡의 목조 트러스 위에 일식기와를 올린 모임 지붕 형태의 원형보존을 하고 있다.

③ 보존 현황 및 방법

인천유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내부 기능에 변화를 주었다. 1954년 한국흥업은행지점으로 사용되었다가 1992년까지 카페, 중고가구도매상 임대점인 상업시설로 이용되었다.

④ 활용 현황

2006년 리모델링을 거쳐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시관에는 인천 주요 근대건축물 모형과 영상 자료 등을 소장·전시하고 있다.

⑤ 활용 방향

주변의 근대개항기의 현존하는 중요건축물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및 우리나라 근대개항기의 모습을 민속촌 같이 세트로 만들어 마치 그 시대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온 것 같은 장소를 마련하여 지역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제3장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 현황

제1절 문화재 지정된 역사적 건축물 현황

제2절 문화재 미지정 역사적 건축물 현황

제3장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 현황

제1절 문화재 지정된 역사적 건축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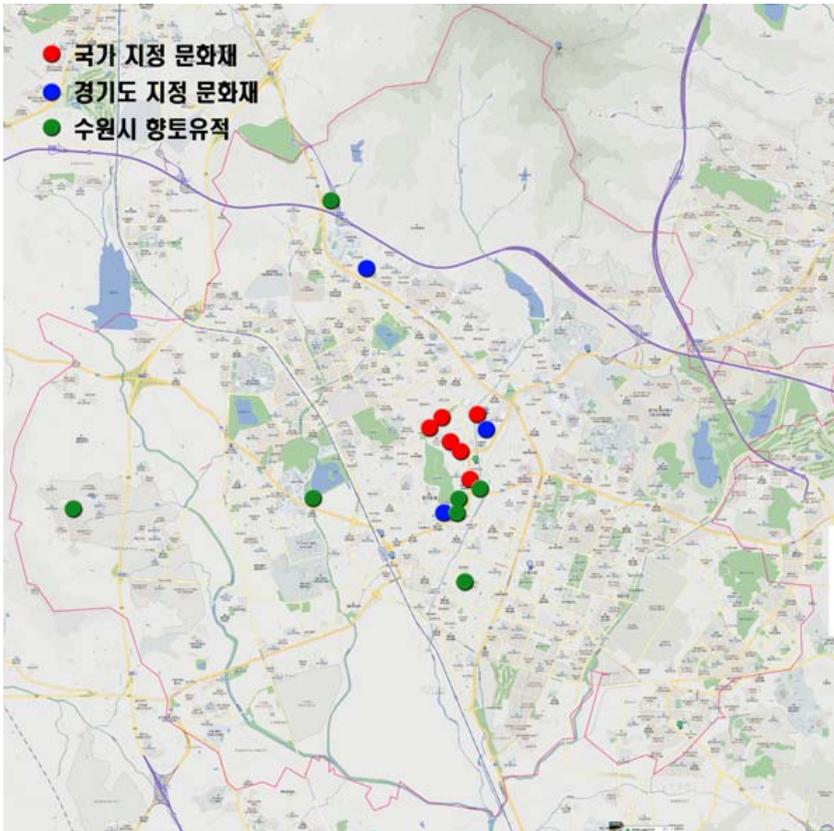
1. 수원시 문화재 지정 현황

수원시에는 2013년 7월 31일 기준으로 총 60종의 지정 및 등록문화재가 산재하여 있다. 이 중 건축물로 한정하면 다음과 같이 역사적 건축물 지정 현황을 정리할 수 있으며, 국가 지정 7종, 경기도 지정 3종, 수원시 지정 6종 등 총 16종의 역사적 건축물이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다.

〈표 3-1〉 수원시 문화재 중 역사적 건축물 현황

구분	종별	지정 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지정일자
국가 지정 문화재	보물	402	팔달문	1동	팔달구 팔달로 2가	1964.09.03
		403	화서문	1동	팔달구 장안동 25-2	1964.09.03
		1709	방화수류정	1동	팔달구 매향동 151	2011.03.03
		1710	서북공심돈	1동	팔달구 장안동 332	2011.03.03
	사적	3	화성	일원	수원시 일원	1963.01.21
		115	화령전	1곽	팔달구 신흥동 123	1963.01.21
		478	화성행궁	일원	팔달구 남창동 산1-2외	2007.06.08
경기도 지정 문화재	중요 민속자료	123	수원 광주이씨 월곡택	1곽	장안구 파장동 383	1984.01.10
	경기도 기념물	175	아담스기념관	1동	팔달구 매향동 110	2001.01.22
	경기도 문화재 자료	1	수원향교	1곽	팔달구 교동 43	1983.09.19
향토 유적	수원시 향토유적	1	향미정	1동	권선구 서둔동 251	1986.04.08
		2	거북산당	1동	팔달구 영동 43-2	1986.04.08
		5	미륵당	1동	장안구 파장동 23-11	1986.04.08
		11	버드내 산제당	1동	권선구 세류3동 156-62	2003.11.27
		18	옛 수원문화원 건물	1동	팔달구 교동 74-1	2006.12.26
		19	옛 부국원 건물	1동	팔달구 교동 93-7	2006.12.26

[자료] 수원시 통계자료 현황 참조하여 재구성, <http://stat.suwon.go.kr>



〈그림 3-1〉 수원시 지정 및 등록문화재 현황

1) 국가 지정 역사적 건축물 현황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 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한다(PMG지식엔진연구소, 2008).

수원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총 15종이 산재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지정된 사례는 총 7종으로 주로 화성과 관련된 건축물이 대부분이다. 화성 관련 건축물들은 단순한 하나의 성(成)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와 함께 건축학적 의미를 지닌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1997년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1) 팔달문 (보물 제402호)

수원 팔달문(八達門)은 조선 후기의 성문 건축형태를 고루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로 1964년 9월 3일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었다²⁾. 정조 20년(1796)에 완성된 성곽으로 한국 성곽을 대표하는 뛰어난 역사문화유적이다.

수원 팔달문은 수원성(화성)의 남쪽문으로 인접한 팔달산의 지명을 따왔다. 팔달문의 문루는 앞면 5칸, 옆면 2칸의 2층 건물로서 지붕은 앞면에서 볼 때 사다리꼴을 한 우진각지붕형태를 보이며, 지붕 처마를 받치는 공포는 다포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바깥쪽에는 문을 보호하고 튼튼히 지키기 위해 반원 모양으로 옹성을 쌓았으며, 문 좌우에는 성벽이 연결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도로로 인해 성문만 남아있다.



〈그림 3-2〉 수원 팔달문 전경

(2) 화서문 (보물 제403호)

수원 화서문(華西門)은 우리나라의 다른 성곽 건축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건축물로서 구조도 특이하지만, 화서문 주변 풍경과 잘 어울려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팔달문과 함께 1964년 9월 3일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었다³⁾.

화서문은 수원성(화성)의 서쪽문으로



〈그림 3-3〉 수원 화서문 전경

2)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조하여 재구성

3)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조하여 재구성

네모 반듯한 큰 돌을 높이 쌓아 만든 축대 위에 1층 건물을 세웠으며, 규모는 앞면 3칸, 옆면 2칸으로 기둥사이는 모두 개방된 구조이다.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팔(八)자 모양의 팔작지붕 건물이고, 축대의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과 문의 앞쪽에 벽돌로 쌓은 발달모양의 웅성이 있다.

(3) 방화수류정 (보물 제1709호)

수원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은 정조 18년(1794) 건립되었으며, 전시용 건물이지만 정자의 기능을 고려해 석재와 목재, 전돌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조성된 건물이다. 또한, 주변감시와 지휘라는 군사적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조선시대 정자건축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18세기의 뛰어난 건축기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이지만, 최근에서야 그 가치가 주목받아 2011년 3월 3일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었다⁴⁾.



〈그림 3-4〉 수원 방화수류정 전경

(4) 서북공심돈 (보물 제1710호)

수원 서북공심돈(西北空心墩)은 화서문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조20년(1796) 건립되었다. 서북공심돈의 한면은 성곽에 접하고 있으며, 나무지 3면은 돌출된 평면을 이루고 있다. 3층 구조로 하부는 방형 석재를 사용하였고, 1층과 2층 및 3층 하부는 전돌을 사용하였다. 3층의 포루(鋪樓)는 정면 2칸, 측면 2칸의 팔작 기와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북공심돈의 기능은 돌출된 외벽에 총안을 설치하여 성에 접근하는 적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조하여 재구성

서북공심돈과 같은 성곽기술은 화성에만 볼 수 있는 역사문화재로 재료의 유연성과 기능성이 우수하며, 치성의 쌓기 기법과 상부 공심돈 전돌 축조기법, 총안 등 중요한 시설 등 독창적인 건축형태와 조형미를 지니고 있다. 2011년 3월 3일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었다⁵⁾.



〈그림 3-5〉 수원 서북공심돈 전경

(5) 화성 (사적 제3호)

수원 화성(華城)은 팔달산을 끼고 낮은 구릉과 평지를 따라 쌓은 성곽으로 정조18년에 성을 쌓기 시작하여 2년 후(1794) 완성하였으며, 성곽의 둘레가 약 5.7km, 성벽의 높이가 4~6m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실학자인 유형원과 정약용이 성을 설계하고 거중기 등을 이용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을 축조하였다.



〈그림 3-6〉 수원 화성 전경

성곽의 축조기술과 함께 화성 내에는 화성행궁 및 각종 방어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1963년 1월 21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또한,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화성은 한국전

5)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조하여 재구성

쟁으로 인해 성곽과 시설물들이 파손되는 시련이 있었으나, 1975년부터 지속적인 보수 및 복원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⁶⁾.

(6) 화령전 (사적 제115호)

수원 화령전(華寧殿)은 23대 임금인 순조가 아버지인 정조의 지극한 효성을 본받기 위해 화성 행궁 옆에 화령전을 건립하여(1801) 해마다 제사를 지냈으며, 정전의 현판 글씨도 순조가 직접 쓴 것이다.



〈그림 3-7〉 수원 화령전 내 운한각 전경

이곳의 건물들은 대부분 정전인 운한각의 건축규범에 따라 지어졌으며, 지붕이 있는 복도를 연결하여 눈이나 비가 올 때도 젖지 않도록 하였다.

비교적 좋은 상태로 보존되고 있어 당시의 건축양식이 잘 나타나 있으며, 1963년 1월 21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⁷⁾.

(7) 화성행궁 (사적 제478호)

수원 화성행궁(華城行宮)은 조선 후기의 정치와 군사 및 사회문화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역사문화유산으로 발굴조사 및 복원정비사업을 통해 조선시대 행궁의 모습을 재현하게 됨으로써 역사적 학술가치



〈그림 3-8〉 수원 화성행궁 전경

6)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조하여 재구성

7)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조하여 재구성

가 점차 커지고 있다.

화성행궁의 의미는 정조시대 실학정신을 바탕으로 개혁을 실천하고자 했던 역사적 장소인 동시에 지극한 효(孝)의 상징적 공간이며,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중심으로 2007년 6월 8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⁸⁾.

2) 경기도 지정 역사적 건축물 현황

경기도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정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에 수원시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총 22종 산재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지정된 사례는 3건으로 확인되었다.

(1) 수원 광주이씨 월곡댁 (중요민속자료 제123호)

수원 광주이씨 월곡댁은 안채, 바깥채, 헛간, 광이 울안에 자리하고 있는 초가집이다. 안채에서 발견된 상량문에 의하면 고종25년(1888)에 지어진 것으로 고증되어 학술적 가치가 있다.

안채는 평범한 ‘ㄱ’자형으로 부엌-대청-안방-건넌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깥채와 안채는 안마당을 사이



〈그림 3-9〉 수원 광주이씨 월곡댁 전경

에 두고 ‘ㄱ’자형으로 배치되었다. 이는 경기도 서해안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배치형태로 이 마을을 오래된 가옥들이 대부분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1984년 1월 14일 경기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지정 당시 명칭은 ‘파장동이병원가옥’이었으나, 현 소유자인 이병원의 모친이 안산군 월곡면에서

8)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조하여 재구성

이곳으로 시집와 지은 가옥으로 월곡택으로 불린 점을 고려하여 ‘수원 광주이씨 월곡택’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2007.1.29.)⁹⁾.

(2) 아담스 기념관 (경기도기념물 제175호)

아담스 기념관이 위치한 삼일학원은 1903년 미국인 선교사가 15명의 소년들을 모아 시작한 교회부설학교로 미국 아담스교회 교인들의 건립기금 2만엔을 기부 받아 1923년 6월 25일 준공되었다.



〈그림 3-10〉 아담스기념관 전경

미국 아담스교회 선교부에서 설계하고 공사는 중국인 왕영덕이 맡았다고 전해지며, 우진각 지붕의 2층 벽돌조 양옥 건물로 층간 바닥은 목조 마루틀을 설치하고 바닥을 꾸몄다. 지붕은 벽체위에 목조트러스를 올리고 널판을 깔아 천연슬레이트를 올렸다.

1988년 현관과 1층 내부를 수리 및 보강하였으며, 현재는 삼일중학교 어학실 및 도서실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¹⁰⁾.

(3) 수원향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호)

향교는 지방에 설립한 국립교육기관으로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동시에 담당하였다.

수원향교는 원래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에 있었으나, 정조19년(1795) 현 위치로 옮겨 세웠으며, 여러 차례 수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원향교는 교육공간인 명륜당을 전면에 두고 제사공간인 대성전을 후면에

9)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조하여 재구성

10) 문화재청 홈페이지 및 수원시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

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형태를 지니고 있다. 명륜당은 전면 5칸, 후면 2칸 규모이며, 지붕은 옆에서 볼 때 팔각지붕의 형태를 보인다. 대성전은 전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제사의례에 적합하도록 전면에 개방된 마루로 구성되었다¹¹⁾.



〈그림 3-11〉 수원향교 전경

3) 수원시 지정 역사적 건축물 현황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문화재를 수원시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수원시에는 총 23종의 향토유적이 산재하고 있으며, 건축물로 지정된 사례는 총 7종으로 확인되었다.

(1) 향미정 (수원시 향토유적 제1호)

정조23년(1799) 농업용 관개수원으로 축만제를 축조하였으며, 당시에 축조된 호수 중 서쪽에 위치해 있다하여 흔히 서호로 불리워왔다. 이와 함께 서호의 경관과 풍치를 한층 아름답고 돋보이게 하는 명물이 향미정으로 순조31년(1831) 당시의 유수인 박기수가 건립한 것이다.

1986년 4월 8일 수원시 향토유적 1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¹²⁾.

11)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조하여 재구성

12) 수원시청 홈페이지 및 수원시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 3-12〉 향미정 전경



〈그림 3-13〉 거북산당 전경

(2) 거북산당 (수원시 향토유적 제2호)

영동시장 번영과 상인들의 평안을 빌기 위하여 1790년경 건립한 도당으로, 1986년 4월 8일 수원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다. 건물은 팔작지붕에 한식 골기와의 얹었는데 규모는 정면 4.9m, 측면 2.5m 정도이다. 당집 내부에는 제단과 거북산당 도당 할아버지와 할머니, 염라대왕의 채색벽화가 있다¹³⁾.

(3) 미륵당 (수원시 향토유적 제5호)

마을 수호신으로 믿어지던 미륵불이 모셔져 있는 집으로 1960년에 증축하여 법화당이라 개명되었다. 사방 1칸, 주칸 3.1m의 벽돌로 축조된 작은 건물로 맞배지붕으로 구성되었다. 미륵당안의 미륵입상은 총 높이 249cm, 가슴 폭 107cm, 머리 높이 114cm정도이며 화강암으로 조성되었고 조선시대 민간신앙과 결합된 미륵불상에서 보이는 공통된 특징으로 조선 중기 이후의 불상으로 추정된다¹⁴⁾.

13)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재구성

14)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 3-14〉 버드네 산제당 전경



〈그림 3-15〉 미륵당 전경

(4) 버드네 산제당 (수원시 향토유적 제11호)

옛부터 이어져온 수원시의 대표적인 마을 제당 중의 하나로 매년 음력 시월 초하루 저녁에 「당제」, 「당제사」, 「산신제」, 「산제사」 등 마을 공동의 제의를 벌여 마을의 평안과 마을 사람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본래 당집의 형태는 전하는 바가 없으나, 흙벽에 기와지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집의 훼손이 심하여 1956년과 2007년 두차례에 걸쳐 현재의 모습으로 중건되었다¹⁵⁾.

(5) 옛 수원시청사 건물 (수원시 향토유적 제18호)

옛 수원시청사 건물은 1956년 수원 읍사무소 자리에 신축했던 지상 2층 규모의 벽돌조 건물이다. 평면은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지붕은 모임지붕 형태로 되었고 시멘트 기와를 이었다.

창문의 형태는 가로로 긴 직사각형



〈그림 3-16〉 옛 수원문화원 전경

15)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재구성

형태로 독특한 인상을 보이며, 돌출된 상·하인방 및 좌우 샘틀은 철근콘크리트 조로 만들어 벽체와 구분하였다. 특히 1층 창호의 상인방에는 꽃봉오리 모양의 장식을 만들고, 2층 창호의 상인방에는 상·하면에 수평 돌림띠를 돌려 장식하였다.

2006년 12월 26일 수원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¹⁶⁾.

(6) 옛 부국원 건물 (수원시 향토유적 제19호)

부국원은 1916년 설립된 회사로 주로 농작물 종자와 농기구 등을 판매하였는데, 수원향교 방향에 지상 2층의 벽돌 조적조의 건축물을 건립하였다. 2층 바닥은 목재바닥이 아닌 철근 콘크리트조로 만들었고, 건물 정면과 후면에 3층 높이의 박공벽을 세웠다.

현재는 출판사 건물로 사용중이며, 내부 지붕층을 개조하여 3층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건물이 많이 노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보수 등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림 3-17〉 옛 부국원 전경

2006년 12월 26일 수원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¹⁷⁾.

16) 수원시청 홈페이지 및 수원시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

17) 수원시청 홈페이지 및 수원시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

제2절 문화재 미지정 역사적 건축물 현황

수원시에는 문화재로 지정 및 등록되지 않은 미지정역사적 건축물들이 여전히 산재하고 있으며, 수원시 건축물대장 정보 및 수원시 역사 및 문화 등 관련 문헌조사를 활용하여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였다.

1. 건축물대장 조사

수원시의 도움으로 수원시 건축물대장 정보를 분석하였으며, 50년 이상 건축물을 중심으로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건축물대장 정보를 통해 역사적 건축물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문헌조사를 통해 건축문화유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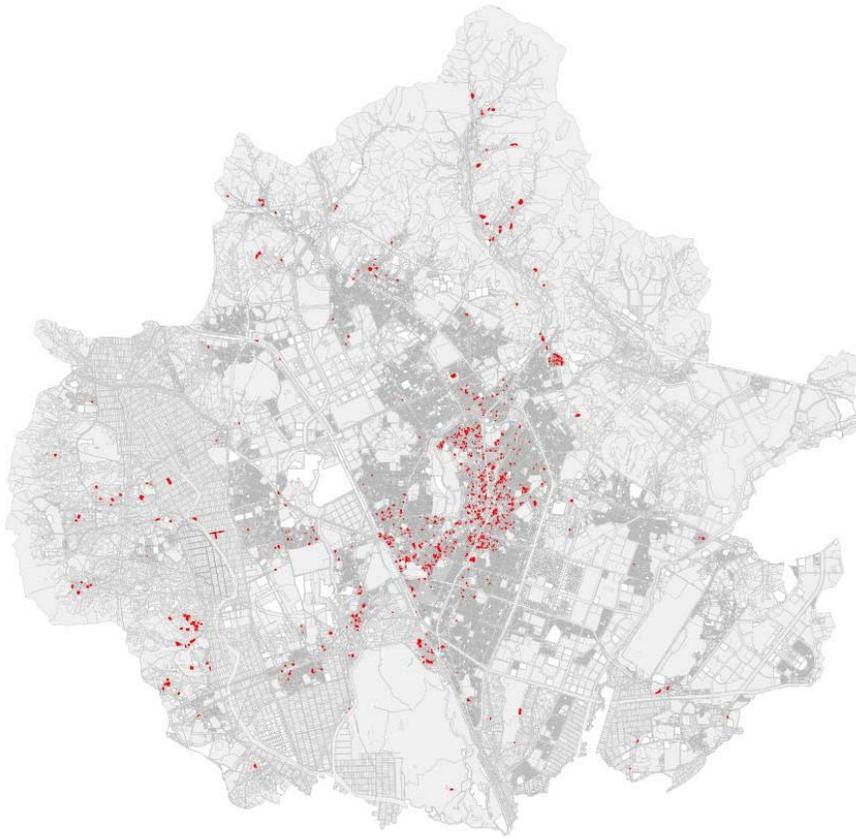
1) 일반건축물 현황

수원시에 산재한 일반건축물은 총 55,052동이며, 2,940동의 건축물이 5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구별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팔달구에 집중되어 있는 현황을 보인다.

〈표 3-2〉 수원시 50년이상 경과된 일반건축물 현황

구분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수원시 계
50년 경과 일반건축물	808	135	277	1,720	2,940
	(4.7 %)	(2.3 %)	(2.1 %)	(9.3 %)	(5.3 %)
일반건축물 전체	17,287	5,953	13,313	18,499	55,052

* 단위 : 동(棟)



〈그림 3-18〉 수원시 50년이상 경과된 일반건축물 분포 현황

(1) 권선구

권선구는 수원시의 서남부지역으로 넓은 지역을 점유하고 있으며, 넓은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권선구의 전체 건축물 수는 17,287동이며, 5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는 808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원역을 중심으로 세류동에 집중되어 있는 현황을 보인다. 하지만, 건물수에 비해 50년이 경과된 건축물이 많은 지역은 금곡동 및 호매실동, 장지동 및 평동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3-3〉 권선구 50년이상 경과된 일반건축물 현황

구분	50년 경과 일반건축물		수원시 계
고색동	33	(2.1 %)	1,553
곡반정동	4	(0.4 %)	925
구운동	12	(1.0 %)	1,237
권선동	23	(1.1 %)	2,168
금곡동	83	(30.3 %)	274
당수동	6	(2.7 %)	222
대황교동	4	(2.6 %)	151
서둔동	66	(3.6 %)	1,813
세류동	252	(4.5 %)	5,583
오목천동	50	(6.0 %)	839
입북동	6	(2.7 %)	225
장지동	22	(13.7 %)	161
탐동	36	(3.6 %)	1,003
평동	75	(14.7 %)	511
평리동	2	(5.6 %)	36
호매실동	134	(22.9 %)	586
수원시 전체	808	(4.7 %)	17,287

* 단위 : 동(棟)

(2) 영통구

영통구는 수원시의 동부지역으로 택지개발로 인해 50년 이상 건축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축물 수는 5,953동이며, 5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는 135동으로 망포동에서 많이 나타났다.

또한, 건축물 수에 비해 50년이 경과된 건축물이 많은 지역은 망포동 및 하동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삼성전자 관련된 일반건축물 정보가 누락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3-4〉 영통구 50년이상 경과된 일반건축물 현황

구분	50년 경과 일반건축물		수원시 계
망포동	55	(12.4 %)	444
매탄동	18	(0.6 %)	2949
신동	5	(2.2 %)	223
영통동	11	(1.1 %)	960
원천동	12	(1.2 %)	978
이의동	18	(6.5 %)	275
하동	16	(12.9 %)	124
수원시 전체	135	(2.3 %)	5,953

* 단위 : 동(棟)

(3) 장안구

장안구는 수원시의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건축물 수는 13,313동이며, 5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는 277동으로 전역에 고르게 분포된 특징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광교동에는 건축물 수에 비해 5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장안구 50년이상 경과된 일반건축물 현황

구분	50년 경과 일반건축물		수원시 계
상광교동	5	(4.4 %)	113
송죽동	1	(0.1 %)	1178
연무동	37	(1.9 %)	1944
영화동	47	(1.9 %)	2421
율전동	25	(2.2 %)	1114
이목동	18	(4.9 %)	367
정자동	34	(1.6 %)	2152
조원동	13	(0.7 %)	1793
천천동	36	(6.1 %)	587
과장동	28	(1.9 %)	1465
하광교동	33	(18.4 %)	179
수원시 전체	277	(2.1 %)	13,313

* 단위 : 동(棟)

(4) 팔달구

팔달구는 수원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건축물 수는 18,499동이 위치하고 있다. 이중 5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는 1,720동으로 수원화성 성곽 주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표 3-6〉 팔달구 50년이상 경과된 일반건축물 현황

구분	50년 경과 일반건축물		수원시 계
구천동	32	(32.7 %)	98
고등동	184	(7.3 %)	2534
교동	81	(14.4 %)	562
남수동	91	(20.6 %)	442
남창동	24	(9.6 %)	251
매교동	149	(13.0 %)	1150
매산로1가	88	(24.2 %)	363
매산로2가	54	(14.2 %)	381
매산로3가	134	(19.0 %)	704
매향동	40	(9.6 %)	417
복수동	62	(17.4 %)	357
신평동	70	(17.3 %)	405
영동	34	(27.9 %)	122
우만동	12	(0.7 %)	1813
인계동	262	(8.2 %)	3211
장안동	48	(13.8 %)	348
지동	250	(9.7 %)	2586
팔달로1가	19	(16.5 %)	115
팔달로2가	29	(22.0 %)	132
팔달로3가	30	(14.0 %)	215
화서동	27	(1.2 %)	2293
수원시 전체	939	(12.9 %)	7,259

* 단위 : 동(棟)

집합건축물 현황

수원시에 산재한 집합건축물은 총 2,185건이며, 단지 3건의 집합건축물이 5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구별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팔달구에 집중되어 있는 현황을 보인다.

〈표 3-7〉 수원시 50년이상 경과된 집합건축물 현황

구분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수원시 계
50년 경과 집합건축물	-	-	-	3	3
	(0.0 %)	(0.0 %)	(0.0 %)	(0.9 %)	(0.1 %)
집합건축물 전체	1,095	280	472	338	2,185

* 단위 : 동(棟)

(1) 팔달구

팔달구에 위치한 집합건축물은 모두 3건으로 교동, 매교동, 신흥동에 각 1건 위치하고 있다.

〈표 3-8〉 팔달구 50년이상 경과된 집합건축물 현황

구분	50년 경과 일반건축물		수원시 계
교동	1	(10.0 %)	10
매교동	1	(5.0 %)	20
신흥동	1	(12.5 %)	8
기타	-	(0.0 %)	300
수원시 전체	3	(0.9 %)	338

* 단위 : 동(棟)

2. 문헌조사

수원시에서는 산재한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를 여러차례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1997년 수원시사 편찬을 위한 조사와 2000년 경기도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원시 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유적에 대한 자료수집 및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표 3-9〉 문헌조사 현황

NO.	문헌명	발행기관	출판년도
1	수원시사 - 중편, 문화의 보고 수원	수원시사편찬위원회	1997
2	수원시 근현대사 증언자료집 II	수원시	2002
3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4	수원시 마을지시리즈 2 - 율전동지	수원문화원	2005
5	수원시 마을지시리즈 3 - 구운·금호동지	수원시청	2006
6	수원시 마을지시리즈 4 - 화성안 마을지	수원박물관	2010
7	수원시 마을지시리즈 5 - 북수원지	수원박물관	2010
8	수원시 마을지시리즈 6 - 세류동지	수원박물관	2010
9	수원시 마을지시리즈 7 - 고등동지	수원박물관	2012
10	수원시 마을지시리즈 8 - 서둔동·탑동지	수원박물관	2013

이상의 문헌조사를 통해 총 66건의 역사적 건축물을 정리할 수 있었으며, 건물의 용도에 따라 고가(古家), 근대건축물, 민속신앙, 산업유산, 종교시설, 교육시설 등으로 세분하였다.

고가(古家)는 기본적으로 50년 이상 오래된 주택을 말하며, 도시의 성장과 함께 택지개발 및 재개발 등으로 인해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고가의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에 군집을 이루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씨족마을을 구성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유사한 재료의 사용 및 유사한 평면구성을 지닌 건축적 특징을 보인다.

근대건축물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축물을 말하며, 당시로서는 현대적인 건축기술과 재료의 사용 등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원에서는 농업 기술과 관련된 근대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으며, 농업진흥청 및 서울대 농생명 과학대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건축물들이 조사되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교 내 근대 및 현대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¹⁸⁾.

민속신앙은 마을의 공동의례 및 공동제의를 통해 마을 구성원들의 연대감 형성 및 공동체적 특징을 공유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종교시설은 사찰 및 교회 등을 모두 포함하며, 종교적 의미를 통해 구성원들 간의 동질감 및 연대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교육시설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학교가 많으며, 사회적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및 동질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표 3-10〉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 현황

구분	고가	근대건축	민속신앙	산업유산	종교시설	교육시설	수원시 계
권선구	15	3	5	2	3	3	31
영통구	11	-	-	-	-	-	11
장안구	3	-	4	1	1	0	9
팔달구	5	2	-	-	5	2	14
수원시 계	34	5	9	3	9	5	65

18) 수원시 내부자료 참조

1) 권선구

권선구에는 문헌조사를 통해 총 31건의 역사적 건축물이 조사되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1〉 권선구 역사적 건축물 현황

구분	고가	근대건축	민속신앙	산업유산	종교시설	교육시설	권선구 계
건축물 현황	15	3	5	2	3	3	31
존재확인	1	2	-	1	1	-	5
멸실*	8	1	3	-	-	-	12
추가확인필요	6	-	2	1	2	3	14

* 멸실(滅失) : 재해, 철거, 도괴 등에 의해 건축물이 없어지는 것 (건축용어사전_성안당 참조)

대부분의 역사적 건축물에 관한 자료가 오래되었고, 2000년 이후 개발사업이 여러 곳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건축물의 현존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다. 현황확인에는 건축물대장 정보 및 위성사진을 활용하였으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역사적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일부 대상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위성사진과 현장 방문으로는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현장확인 및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현장확인 결과 31건의 건축물 중 12건(38.7%)의 건축물이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문화재 지표조사(2000) 이후 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하였고 그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들은 자연스럽게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대 농생대 및 농업진흥청의 경우에는 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건물들이 많이 방치되고 있는 현황이지만, 현장조사 결과 30~60년대에 건립된 근현대건축물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그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수원시 및 경기도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근대 건축물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¹⁹⁾.

〈표 3-12〉 권선구 역사적 건축물 현황 상세

구분	유적명	소재지	유형	시대	비고
K-01	박지원 가옥	고색동 32	고가	근대	추가확인필요
K-02	김진균 가옥	구운동 139-67	고가	근대	멸실
K-03	박용기 가옥	금곡동 1007	고가	근대	멸실
K-04	한희수 가옥	당수동 278	고가	근대	멸실
K-05	이항모 가옥	서둔동 155-11	고가	근대	추가확인필요
K-06	유시균 가옥	서둔동 107-10	고가	근대	추가확인필요
K-07	유시환 가옥	서둔동 121-2	고가	근대	현존
K-08	차재하 가옥	오목천동 502	고가	근대	멸실
K-09	박간난 가옥	오목천동 816	고가	근대	멸실
K-10	김진춘 가옥	평동 9-11	고가	근대	멸실
K-11	김정선 가옥	평동 13-212	고가	근대	추가확인필요
K-12	한상해 가옥	호매실동 403-2	고가	근대	멸실
K-13	박필선 가옥	호매실동 840-2	고가	근대	멸실
K-14	박영원 가옥	호매실동 903	고가	근대	추가확인필요
K-15	최덕규 가옥	호매실동 1253	고가	근대	추가확인필요
K-16	농촌진흥청 종합분석실	서둔동 251	근대건축	근대	현존
K-17	옛 수원농림학교	서둔동 103	근대건축	근대	현존
K-18	철도관사	세류1동 246-13	근대건축	근대	멸실
K-19	고색동 큰말 당집	고색동 381-4	민속신앙	조선	추가확인필요
K-20	박복례 가옥 성주	구운동 234-4	민속신앙	근대	멸실
K-21	조금녀 가옥 성주	구운동 234-2	민속신앙	근대	멸실
K-22	김진규 가옥과 엄나무	당수동	민속신앙	근대	멸실
K-23	평동 벌말 당집	평동 31-14	민속신앙	미상	추가확인필요
K-24	아세아 시멘트	세류1동 203	산업유산	현대	현존
K-25	수원합동양조장	세류2동 565-5	산업유산	현대	추가확인필요
K-26	성 프란체스코 성당 (세류성당)	세류1동 334-1	종교시설	현대	추가확인필요
K-27	수성교회	세류1동 42-14	종교시설	현대	추가확인필요
K-28	용화사	호매실동 자목마을	종교시설	현대	현존
K-29	신곡초등학교	세류3동 527	교육시설	현대	추가확인필요
K-30	노림 동화강습소 (현 칠보초등학교)	금곡동 245-2	교육시설	현대	추가확인필요
K-31	자혜학교	수봉로 47	교육시설	현대	추가확인필요

19) 수원시청 내부자료 참조

(1) 유시환가옥

유시환가옥은 서둔동 121-2번지로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남아있는 오래된 가옥들 중 가장 양호한 보존상태를 보인다.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랑채의 상량문을 통해 1936년 건축되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안채에서는 상량문이 없어 건축연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사랑채보다 오래 되었다고 한다.

이 가옥은 1980년대 전후하여 조금씩 증개축한 흔적이 많으며, 초가지붕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고, 벽은 시멘트몰탈로 마감처리 하였다. 사랑채는 아마도 농대생들에게 세를 들였던 것으로 보이며, 쌀광과 나무간을 방으로 개조하였다.

최근 농생대의 이전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낡고 오래된 가옥들이 방치되고 있는 현황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생대를 중심으로 한 환경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9〉 유시환 가옥 위치

20) 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 2000, p288 참조



〈그림 3-20〉 유시환 가옥 평면도



〈그림 3-21〉 유시환 가옥 전경

(2) 농촌진흥청 종합분석실 (구 농사시험장 종예부)

농업진흥청은 서둔동 25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합분석실 건물은 일제강점기 때 농사시험장(1929~1944) 당시 준공된 건물(1931)로서 중부지역 농업 연구의 메카인 농촌진흥청 건물 중 가장 오래되어 역사적 가치평가가 있으며, 정부 중앙관서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로 파악되고 있다²¹⁾.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이며, 주요 구조부는 적벽돌 조적조를 쌓고 1층 및 2층 바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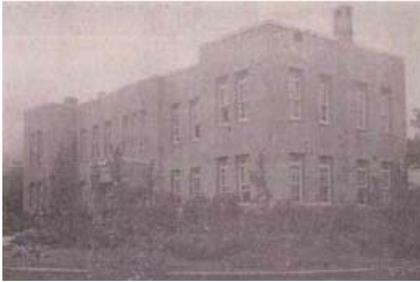
〈그림 3-22〉 농업진흥청 종합분석실 위치

지붕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다.

21) 한국경제 2012.10.19자 참조

1978년 일부 증축 및 개보수를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변경되었다. 증축부분은 흰색 페인트로 마감하여 조적조 벽체부분과 구분하고 있어 조형미가 돋보인다.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현재는 세종사업단이 사용하고 있다.



〈그림 3-23〉 1931년경 농사시험장



〈그림 3-24〉 농업진흥청 종합분석실

(3) 옛 수원농림학교 (현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옛 수원농림학교는 서둔동 103번지 일대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립경위는 대한제국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9년 농업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에 위치한 상공학교에 농과를 증설하여 상농상공학교로 개칭하고 학제를 개편하였다. 당시 교사로 사용하던 한옥 건물이 협소하고 설비가 열악하여 1906년 칙령 제39호에 의거 농상공학교에서 농과를 독립시켜 농림학교라 칭하고 수원에 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림 3-25〉 옛 수원농림학교 위치

옛 수원 농림학교의 설계는 탁지부 건축소에서 하고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였는데,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일본인 오키라가

공사를 맡아 진행했다. 당시 민간인 소유였던 현 서울대학교 농생대 부지를 약 750원에 매입하여 교사, 기숙사, 관사 등 총 560평 규모의 건물을 지었다.

1918년 조선총독부 수원 농림전문학교로 승격되면서 시설을 크게 확충하였으며, 1928년에는 약 40여동의 건물이 건립되었다.

농생대 부지 내 건립된 근대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²²⁾.

〈표 3-13〉 옛 수원농림학교(현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내 근대건축물 현황

건립 시기	근대 건축물 명칭	면적	규모	주요구조	비고
1907	초대 교사동	1,850 m ²	1층	양식 목조	일본인 오쿠라 시공
	기숙사				12년 화재로 재건
	관사				
1909	한국인 기숙사 동요		2층	목조	
1917	일본인 기숙사 서요				
1921	동식물실험실	320 m ²			
	화학실험실	327 m ²			
	양잠실, 축사 등 총 32동				
1933	교우회관	245 m ²	2층	1층-조적조 2층-목구조	일본인 타노와미노히토 시공
	기념회관	240 m ²	2층		
1937	제1본관		2층	벽돌조 + RC 바닥	1957년 3층으로 증축되어 현존
	제1본관		2층	벽돌조 + RC 바닥	현존
	제1본관		2층	벽돌조 + RC 바닥	현존

22) 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 2000, pp289-293 참조

이외에도 총 70여동의 건축물이 있었으나 한국전쟁으로 모두 소실되었으며, 현존하는 근대건축물은 제1, 2, 3 본관 뿐인 것으로 전해진다. 1952년 국고지원으로 제1본관의 지붕을 복구하였으며, 1954년에는 UNKRA/FAO의 원조로 제2,3본관과 강당, 도서관 등이 복구되었고, 나머지 현존하는 건물들은 모두 ICA의 원조로 신축되었다.

제1,2,3본관은 1957년 증축되는 과정에서 벽돌조 위에 시멘트몰탈을 바른 후 유성페인트 마감하는 등 외관의 변화가 많았지만, 1층 내부는 신축당시의 모습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또한 현재는 증축공사를 통해 목재와 금속재마감재로 리모델링하여 행정동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3-26〉 수원농림학교 모습 (1940년대) 〈그림 3-27〉 수원농림학교 현재 모습

이외에도 1957년 건립된 강당건물은 건축가 김희춘이 설계하였으며, 당시의 어려운 시대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축형태 및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축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생대의 이전으로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서 수원시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7년 경기도농업기술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농생대 부지 내 근대건축물에 대한 전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3-28〉 서울대 농생대 강당 (1957)

(4) 아세아 시멘트

아세아 시멘트는 수원역 남측에 세류1동 203번지에 수원공장을 건설하였으며(1976), 제천공장에서 생산된 시멘트를 저장하고 있으며,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일원 및 수도권 일대를 공급하는 시멘트공급 전진기지로서, 1985년에는 레미콘 설비까지 갖추었다.



〈그림 3-29〉 아세아시멘트 전경

현재 수원공장에는 1만톤 규모의 시멘트를 저장할 수 있는 사일로(silo) 1기와 시간당 60톤규모의 포장기 1대, 시간당 150톤의 시멘트 출하설비 2기, 360(m³/H) 규모의 batcher plant²³⁾ 1기가 갖추어져 있다²⁴⁾.

23) Batcher plant는 콘크리트를 물·시멘트·모래·자갈 등 혼합재료를 정해진 비율로 계량하여 믹서로 보내는 계량설비를 말한다.

24) 아세아시멘트 수원공장 홈페이지 참조



〈그림 3-30〉 아세아시멘트 위치

(5) 용화사

호매실동 905번지로 칠보산 등산로 초입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화사의 창건은 1920년 이용인 스님이 노천에 서있는 석불에 주민들이 불공을 드리는 것을 보고 초막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1969년 정면 3칸, 측면 2칸의 대웅전을 짓고 이후 산신각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²⁵⁾.



〈그림 3-31〉 용화사 대웅전 전경

25) 기전문화재연구원, 전개서 p271 참조

용화사 석불의 조성 경위는 확인되지 않으나, 구전되는 전설에 따르면 원래 부터 용화사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상은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으며, 나무판 밑으로 매몰되어 있어 법의 주름을 확인할 수 없어 불상의 양식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부처의 모습이 통일신라 말경 및 고려 초기 불상의 특징을 보여 고려 전반기 불상으로 추정된다.



〈그림 3-32〉 수원 용화사 위치

2) 영통구

영통구에는 문헌조사를 통해 총 11건의 미지정 역사적 건축물이 조사되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건축물이 멸실되었으며, 이는 영통지구 일대의 택지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3-14〉 영통구 역사적 건축물 현황

구분	고가	근대건축	민속신앙	산업유산	종교시설	교육시설	영통구 계
건축물 현황	11	-	-	-	-	-	11
존재확인	-	-	-	-	-	-	0
멸실	10	-	-	-	-	-	10
추가확인필요	1	-	-	-	-	-	1

〈표 3-15〉 영통구 역사적 건축물 현황 상세

구분	유적명	소재지	유형	시대	비고
Y-01	최시중 가옥	영통동 380-5	고가	근대	확인 필요
Y-02	이재원 가옥	원천동 궁말	고가	근대	멸실
Y-03	김호식 가옥	이의동 959	고가	근대	멸실
Y-04	김용봉 가옥	이의동 623-2	고가	근대	멸실
Y-05	김상환 가옥	이의동 513	고가	근대	멸실
Y-06	김학목 가옥의 외양간	이의동 513	고가	근대	멸실
Y-07	심언길 가옥	이의동 102	고가	근대	멸실
Y-08	심정자 가옥	이의동 399	고가	근대	멸실
Y-09	이용대 가옥	이의동 745-2	고가	근대	멸실
Y-10	한익수 가옥	하동 199	고가	근대	멸실
Y-11	오우근 가옥	망포동 444	고가	조선	멸실

3) 장안구

장안구에는 문헌조사를 통해 총 9건의 미지정 역사적 건축물이 조사되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3건의 건축물 현황이 확인되었다.

〈표 3-16〉 장안구 역사적 건축물 현황

구분	고가	근대건축	민속신앙	산업유산	종교시설	교육시설	장안구 계
건축물 현황	3	-	4	1	1	-	9
존재확인	2	-	-	-	1	-	3
멸실	-	-	-	-	-	-	-
추가확인필요	1	-	4	1	-	-	6

민속신앙과 관련된 건축물은 모두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다. 이는 민속신앙 관련된 역사적 건축물은 건축물 자체에 대한 의미보다 건축물 내 상징적 의미를 지닌 민속 신앙물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과장동 일대의 가옥은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수원 광주이씨 월곡택(경기도 중요민속자료 제123호)’와 인접해 있으며, 인접하여 이윤재 가옥 및 이수래 가옥 등 오래된 가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7〉 장안구 역사적 건축물 현황 상세

구분	유적명	소재지	유형	시대	비고
J-01	유영윤 가옥	이목동 231-1	고가	근대	추가확인필요
J-02	이윤재 가옥	과장동 산280	고가	근대	현존
J-03	이수래 가옥	과장동 산285, 290	고가	근대	현존
J-04	울전동 서낭당	울전동 산38	민속신앙	미상	추가확인필요
J-05	이목동 서낭당	이목동 173-3	민속신앙	미상	추가확인필요
J-06	이종섭 가옥	조원동 456	민속신앙	근대	추가확인필요
J-07	이필좌 가옥 터줏가리	조원동 443	민속신앙	근대	추가확인필요
J-08	청련암	조원동 474-1	종교시설	조선	현존
J-09	새마을 두부공장	울전동	산업유산	현대	추가확인필요

(1) 이윤재 가옥

이윤재 가옥은 안채의 상량문을 통해 1895년 건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안채는 일고주 오량의 홑처마 팔작지붕의 형태를 보이며, 광-부엌-안방-마루-건넌방으로 구성되었다. 반면, 사랑채는 건축연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랑방-대문간-광-광-마루로 구성되어 있다²⁶⁾.



〈그림 3-33〉 이윤재 가옥 위치



〈그림 3-34〉 이윤재 가옥 전경



〈그림 3-35〉 이윤재 가옥 평면도

(2) 이수래 가옥

이수래 가옥은 과장동 28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채, 행랑채, 별당채가 안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26) 기전문화재연구원, 전개서 p176 참조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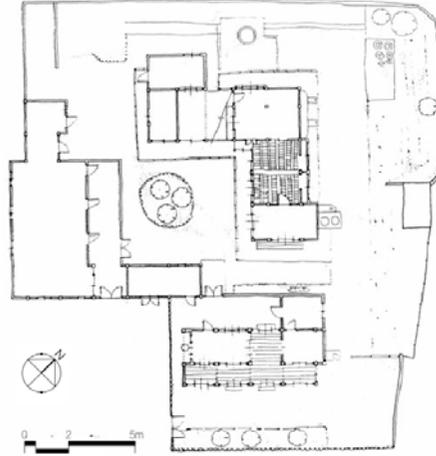
안채의 상량문을 통해 1919년 건립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행랑채도 같은 시기에 지어졌고, 한식 기와와 돌담이 남아있는 별당채는 해방전 건물이다. 안채는 일부 개조되었으나 구조체는 원래의 것이라 하며, 행랑채는 많이 개조되어 원형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별당채는 세를 놓으면서 일부 개조된 상태이다²⁷⁾.



〈그림 3-36〉 이수래 가옥 위치



〈그림 3-37〉 이수래 가옥 전경



〈그림 3-38〉 이수래 가옥 평면도

27) 기전문화재연구원, 전개서 p176 참조하여 재구성

(3) 청련암

청련암은 창상사의 옛터에 세운 절로서 1893년 극락보전(極樂寶殿), 독성각(獨聖閣), 칠성각(七星閣), 봉향각(奉香閣)의 초창기 가람을 바탕으로 건립하였으며, 이후 1902년 영친왕의 생모인 귀비엄씨가 봉향각에서 도량을 얻어 크게 중창하였다.

극락보전에는 신중도(1893,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7호), 독성각에는 독성도(1893,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8호), 칠성각에는 칠성도(1893,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50호) 및 산신도(1893,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9호) 등이 모셔져 있으며, 19세기 후반 불교회화를 잘 반영한 작품으로 회화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들이 소재하고 있다. 반면 귀비 엄씨가 도량을 얻었다는 봉향각은 너무 남아 새로 지으면서 요사채로 전환되었다²⁸⁾.



〈그림 3-39〉 청련암 위치도

28) 기전문화재연구원, 전개서 p219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 3-40〉 청련암 극락보전



〈그림 3-41〉 청련암 독성각



〈그림 3-42〉 청련암 철성각

4) 팔달구

팔달구에는 문헌조사를 통해 총 14건의 미지정 역사적 건축물이 조사되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8〉 팔달구 역사적 건축물 현황

구분	고가	근대건축	민속신앙	산업유산	종교시설	교육시설	팔달구 계
건축물 현황	5	2	-	-	5	2	14
존재확인	1	2	-	-	5	-	8
멸실	3	-	-	-	-	-	3
추가확인필요	1	-	-	-	-	2	3

하지만, 고가는 대체로 멸실되고 있으며, 근대건축물과 종교시설 건축물은 대체로 잘 남아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9〉 팔달구 역사적 건축물 현황 상세

구분	유적명	소재지	유형	시대	비고
P-01	김진목 가옥	구천동 18-1	고가	근대	멸실
P-02	김학현 가옥	구천동 10-35	고가	근대	멸실
P-03	장준식 가옥	남창동 24-1	고가	근대	현존
P-04	이정수 가옥	복수동 251	고가	근대	추가확인필요
P-05	이재숙 가옥	장안동 11-3	고가	근대	멸실
P-06	옛 수원시청사	교동 74-1	근대건축	현대	현존
P-07	옛 수원상업학교 본관	매교동 250	근대건축	근대	현존
P-08	수원포교당	남수동 92	종교	근대	현존
P-09	봉녕사	우만동 248	종교	고려	현존
P-10	팔달사	팔달로3가 116	종교	근대	현존
P-11	묘수사	복수동 72	종교	근대	현존
P-12	농천교회 본당	고등동 268	종교	현대	현존
P-13	수원여고 생활지도관	고등동 19-1	교육	현대	추가확인필요
P-14	수원공립가정여학교 (현 수원여고)	고등동 19-1	교육	현대	추가확인필요

(1) 장준식 가옥

장준식 가옥은 남창동 24-1번지에 위치한 기와집으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1937년 5월 20일 건립된 전통한옥건물이다²⁹⁾. 이 주변에는 기와집이 많았다고 전해지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이 가옥이 유일하다.

1961년 신상옥 감독, 최은희 주연의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영화촬영장으로 활용되어 한국영화사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써 가치평가가 높은 근대건축물이다³⁰⁾.

가옥은 ‘ㄱ’자 안채와 ‘ㄴ’자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의 한쪽이 연결되어 있다. 안채는 일고주 오량의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한식기와를 올렸으며, 퇴가 놓인 건넌방-마루-안방-부엌-찬광으로 실이 구성되어 있다. 사랑채는 무고주 삼량의 홑처마 팔작지붕집으로 광-광-사랑방-대문간-사랑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43〉 장준식 가옥 위치도

29) 가옥을 방문하여 인터뷰하였을 때 건축물대장과 다르게 집주인의 친척이며, 어린 시절에 이 주택에서 살았던 사람은 한국전쟁후에 지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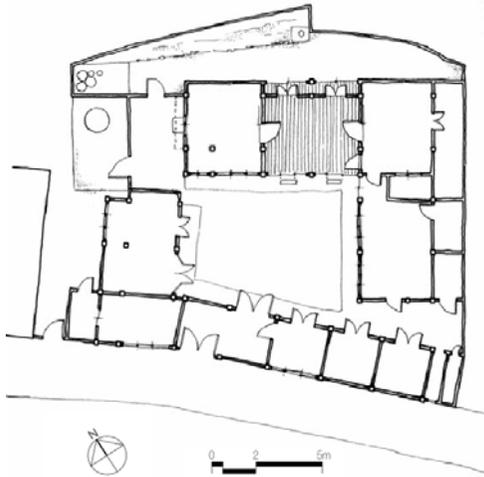
30) 기전문화재연구원, 전개서 p366 및 수원시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 3-44〉 장준식 가옥 전경



〈그림 3-45〉 영화 포스터



〈그림 3-46〉 장준식 가옥 평면도

(2) 옛 수원시청사

1931년 지방자치제도 개정에 따라 수원면(水源面)이 수원읍(水源邑)으로 승격되었으며, 1949년에는 수원시(水源市)로 승격되었다. 시청사 건물은 읍사무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56년 새 청사를 신축하여 1960년대 후반까지 사용하였다. 이후 수원문화원으로 사용하다 현재는 수원가족여성회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3-47〉 옛 수원시청사 위치



〈그림 3-48〉 옛 수원시청사 전경

(3) 옛 수원상업학교 본관

수원 상업학교의 역사는 1909년 설립된 수원 상업강습소에서 시작되었으며, 매교동 250번지에 일본인 상인들로부터 수원 상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41년 3년제 수원상업학교 승격으로 1942년 12월 30일 본관 건물을 신

축하였으며, 2층의 연면적 1,284m²의 규모로 적벽돌 구조로 건립되었다. 전면 중앙부를 약간 돌출시키고, 상부에 커다란 페디먼트를 만들어 중심성을 강조하였다³¹⁾.



〈그림 3-49〉 옛 수원 상업학교
본관 위치



〈그림 3-50〉 옛 수원상업학교 본관 전경

(4) 수원포교당

수원 포교당은 남수동 92-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주사 주지스님이 서낭당 자리에 목조 아미타불 좌상을 안치하고 극락전, 관음전 등을 세우면서 창건된 절이다³²⁾.

처음에는 용주사 표교소란 이름으로 불리다가 현재는 포교당으로 불리고 있다. 수원포교당은 신도가 찾아오는 절이 아니라 스님이 도시속으로 뛰어들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진리를 전하는 적극적인 포교활동으로 큰 의미가 있다.

31) 기전문화재연구원, 전개서 p298 참조하여 재구성

32) 기전문화재연구원, 전개서 p376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 3-51〉 수원포교당 위치도



〈그림 3-52〉 수원포교당 전경

(5) 봉녕사

봉녕사(奉寧寺)는 1208년 원각국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며, 우만동 248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봉녕사에는 1881년 제작된 신증탱화와 현황탱화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152호로 지정되어 주불전인 약사전에 보관되고 있다.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서 고려시대 불상인 삼존석불(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1호) 등 다양한 문화재들이 봉녕사의 역사적 의미를 더해준다³³⁾.



〈그림 3-53〉 봉녕사 위치도



〈그림 3-54〉 봉녕사 약사전 전경

33) 기전문화재연구원, 전개서 p378 참조하여 재구성

(6) 팔달사

팔달사(八達寺)는 팔달로3가 11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895년 창건되었다. 주불전은 용화전(龍華殿)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구성되었으며, 2층 기단을 사용했다. 용화전을 제외하고는 1986년 모두 새로 중건되었다³⁴⁾.



〈그림 3-55〉 팔달사 위치도



〈그림 3-56〉 팔달사 용화전 전경

(7) 묘수사

묘수사(妙壽寺)는 북수동 7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20년 창건한 한국불교법화종 최초의 사찰이며, 영산보전은 정면 3칸, 측면1칸의 벽돌건물로 창건 당시 건립되었다³⁵⁾.

창건 당시에는 주변에 건물이 없었는데, 새벽 4시만 되면 목탁소리가 담을 넘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구실을 하여 일명 ‘뚝딱절’이라고도 한다.

34) 기전문화재연구원, 전개서 p368 참조하여 재구성

35) 기전문화재연구원, 전개서 p231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 3-57〉 묘수사 위치도



〈그림 3-58〉 묘수사 영산보전 전경

(8) 농천교회 본당

농천교회는 고등동 26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0년 4월 1일 창립하여 60년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자리잡았다.

초기 농천교회당 건물(1951)은 원래 농장 관리사무실로 지어진 것을 당시 수원에서 유명한 오씨 성을 가진 목수가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그림 3-59〉 농천교회 본당 전경

당시 유교적 관습에 따라 남녀 좌석을 구분하였다고 한다. 또한, 현재 본당 건물은 1972년 준공되었으며, 당시의 일반적인 교회 건축양식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본당의 길쭉한 스테인드글라스 창은 밀이 터진 돌출창의 형태로 수평으로 배열되어 기하학적 건축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본당 및 초기 교회당 건물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³⁶⁾.



〈그림 3-60〉 농천교회 위치도

36) 수원시 고등동지, pp128-130 참조

제4장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의 가치평가 기준

제1절 가치평가 설정 개요

제2절 가치평가 설정

제3절 가치평가 중요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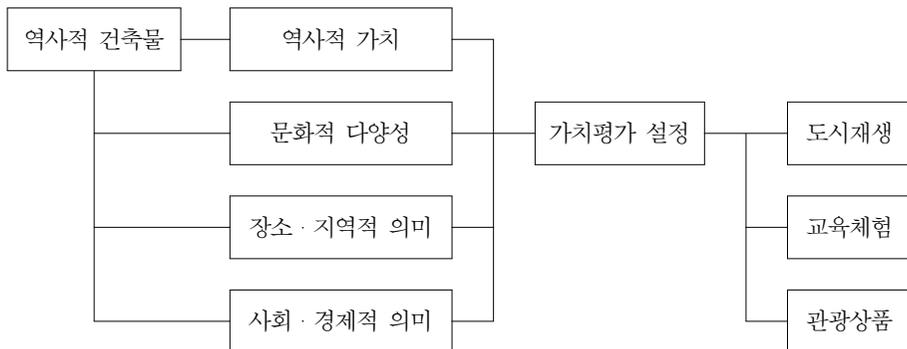
제4절 가치평가 검증

제4장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의 가치평가 기준

제1절 가치평가의 설정 개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근대건축물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이유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부정하고 싶은 대상이 되어왔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가치를 지닌 역사적 건축물들이 도시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소멸되어 버렸다.

근대건축물들은 외세에 의해 건립되어 부끄러운 역사적 산물이라는 인식으로 문화재로 지정되고 있지 않고 있지만, 도시공간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담은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4-1〉 역사적 건축물의 가치평가 설정의 개념

본 연구는 수원시에 적합한 역사적 건축물의 가치평가 설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수원시에 적합한 역사적 건축물의 가치평가 설정기준을 제안하고 있으며, 역사, 문화, 예술, 건축설계 및 도시계획 및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가치평가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가치평가 기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수원시에 산재한 지정

및 미지정 역사적 건축물을 대상으로 파일럿(Pilot)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틀의 적용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제2절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 가치평가 기준 설정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의 가치평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 등록 기준을 참조하여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하였으며, 각종 선행 연구를 통해 역사적 건축물 가치평가를 정리하였다.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가치평가를 분류함에 있어 박근수(2003)는 역사문화적 가치, 지속가능한 가치, 사회경제적 가치 등으로 가치평가를 분류하고 있으며, 홍순연(2009)은 예술적, 역사적, 사회적, 맥락적 가치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김성조 외1(2012)는 역사적, 건축적, 사회적, 경제적, 도시맥락적 가치로 분류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류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가치평가로 분류할 수 있으며[표 4-1], 첫 번째로 역사문화적 가치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역사적인 인물과 관련된 가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역사의 연속적인 의미를 통한 전통적인 정신과 감정 및 기술을 포함하는 가치로 정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예술건축적 가치로서 건축의 형태와 의장, 구조 및 기술, 재료 및 재질 등에 가치를 두고 있다. 세 번째는 사회경제적 가치로서 지역의 특징을 담고 있으며, 지속적인 건물의 이용성에 가치를 두고 있다. 네 번째는 도시맥락적 가치로서 도시경관의 의미와 장소적 의미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시간적 가치는 5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재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관습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 4-1〉 선행연구를 통한 가치기준 분류

구분	박근수 (2003)	홍순연 (2009)	김성조 외1 (2012)	비고
역사 문화적 가치	역사적 증명	전통과 기술	역사성	
	연속성 부여	정신과 감정	사건	
	다양성 유지		인물	
	장소성 확인			
건축 예술적 가치		형태와 의장	형태와 의장	
		재료와 재질	학술성	
			구조 및 기술	
			재료와 재질	
사회· 경제적 가치	미래 가치	용도와 기능	공공성	
	건물이용의 연속성	입지와 환경	지역성	
	자원의 최적이용		장소성	
			문화성	
			체험·교육	
			경제성	
			효용성	
			유용성	
			실용성	
도시맥락적 가치		커뮤니티·어메니티	장소성	
		도시경관	입지와 환경	
			역사경관배경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수원시의 역사적 건축물 가치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 기준을 정리하였다.

〈표 4-2〉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 가치평가 기준설정

분류	가치기준 항목	세부내용
역사적 가치	역사적 사실배경	역사적 배경이 되는 건축물
	역사적 인물관련	역사적 주요인물과 관련 있는 건축물
	건축 경과년도	건축 후 50년 이상인 건축물
문화적 가치	전통성	전통문화의 대표적인 건축물
	문화적 정체성	수원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지닌 건축물
	예술성	예술적 독특함을 지닌 건축물
	교육성	교육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종교성	종교적 의미 및 기념비적인 건축물
건축적 가치	학술성	시대 특성을 반영한 양식, 디테일, 구조형식 등
	재료 및 재질	시대 특성을 반영한 재료 및 재질
	기술 및 기법	시대 특성을 반영한 기술 및 기법
	조형성	조형적 의미가 있는 건축물
사회적 가치	상징성 및 대표성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또는 상징적인 건축물
	희귀성	수원지역에서 유일한 건축물
	공공성	공공적 기능 및 역할을 지닌 건축물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 및 거점 건축물
경제적 가치	미래 잠재적 기능	미래의 잠재적인 가치 증대가 기대되는 건축물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통한 수익증대 건축물
	관광상품	재생을 통한 관광상품 연계 (산업 및 전통유산 등)
도시경관 가치	장소성	장소적 의미를 지닌 건축물
	경관	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멋있는 경관 등)

1. 역사적 가치

역사적 가치는 역사적 사실배경, 역사적 인물관련, 건축경과년도로 세분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3〉 역사적 가치평가의 세부내용

가치기준 항목	세부내용	주요 사례
역사적 사실배경	역사적 배경이 되는 건축물	수원농림학교(1906) 농사시험장(1931)
역사적 인물관련	역사적 주요인물과 관련 있는 건축물	자혜학교(1973)
건축 경과년도	건축 후 50년 이상인 건축물	

1) 역사적 사실배경

역사적 사실배경은 각종 문헌자료를 통해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역사적 사실이 지속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 사실배경이 지속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는 이를 역사문화환경이라 지칭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문화환경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하에서 대한제국 정부 주도로 세워진 수원농림학교(1906)를 설립배경과 이후 총독부에 의해 농사시험장(1931) 등이 건립된 역사적 사실배경은 수원을 농업특성화지역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배경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과 농업진흥청의 발전하였다. 하지만, 이 두 기관의 이전에 따라 농업특성화도시로서의 위상은 축소될지 모르지만, 수원의 발전을 이끌었던 역사의 층³⁷⁾(層, layer)으로서 기억될 가치가 있다.

37) 박근수(2003), 전개서 p41

2) 역사적 인물관련

수원지역의 주요인물과 관련된 건축물을 말하며, 현대 도시에서 사라져가는 동족마을의 형성에 기여했던 인물 및 건축물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의 비(妃)로 이방자여사(본명 나시모토 마사코, 1901~1989)가 설립한 자혜학교(1973)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류동 평창이씨 익평공파의 세류동 입향은 지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동족마을의 형성에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건축 경과년도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기준으로 5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50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간적 가치기준을 50년으로 정한 이유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상정하고 있다³⁸⁾.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가치기준을 문화재청에서 정한 5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정하며,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역사적 건축물로 선정하고 있다. 농천교회 본당(1972)의 경우 주거환경정비지구 에 포함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에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여 50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역사적 건축물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38) 문화재청 홈페이지 내 자주하는 질문(FAQ)을 참조함

2. 문화적 가치

문화적 가치는 전통성, 문화적 정체성, 예술성, 교육성, 종교성 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4〉 문화적 가치평가의 세부내용

가치기준 항목	세부내용	주요 사례
전통성	전통문화의 대표적인 건축물	청련암 (1893)
문화적 정체성	수원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지닌 건축물	수원 화성 (1796)
예술성	예술적 독특함을 지닌 건축물	팔달문 (1796) 방화수류정 (1796)
교육성	교육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노림 동화강습소 버드네 산제당
종교성	종교적 의미 및 기념비적인 건축물	농천교회 본당(1972)

1) 전통성

전통적 가치는 역사적 의미가 지속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을 말하며, 지역적 동질성 및 연대감 형성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오래된 건축물에서 전통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며, 건축적인 요소가 전통적 가치를 지닐 경우 오래도록 남게 된다. 이에 사찰 및 교회 등 종교시설물에서 전통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오래된 가옥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살아오는 전통적 요소가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민속신앙이 더해질 경우 전통적 의미는 강해진다.

2)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관련 가치는 수원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지닌 건축물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서 수원 화성과 관련된 모든 건축물과, 농업진흥청 및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 등 농업 관련 건축물들이 수원의 문화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3) 예술성

예술적 가치는 예술적 독특함을 지닌 건축물을 말하며,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팔달문(1796), 방화수류정(1796) 등이 예술적 독특함을 지닌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관광상품이기도 하다.

4) 교육성

교육적 가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교육적 의미를 줄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모든 역사적 건축물은 나름대로의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초기 교육시설은 어려운 시대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불태워 현재까지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성장한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 또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던 마을제당의 경우 마을의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교육적 의미가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의 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종교성

종교적 가치는 종교의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이를 기념하는 건축물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민속신앙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대표적인 예로서 사찰 건축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건축양식과 함께 불교탱화 등 유형문화재로 인해 중

교적 의미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농천교회 본당(1972)의 경우 종교적 의미와 함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정신 등 그 상징적 의미를 극대화하고 있다.

3. 건축적 가치

건축적 가치는 학술성, 재료 및 재질, 기술 및 기법 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5〉 건축적 가치평가의 세부내용

가치기준 항목	세부내용	주요 사례
학술성	시대 특성을 반영한 양식, 디테일, 구조형식 등	아담스기념관 (1923) 농업시험장 (1931) 수원농림학교 (1937)
재료 및 재질	시대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료 및 재질	부국원 (1916)
기술 및 기법	시대 특성을 반영한 기술 및 기법	옛 수원시청사 (1956)
조형성	조형적 의미가 있는 건축물	농천교회 본당 (1972) 서울대 농과대학 강당 (1957)

1) 학술성

학술적 가치는 건축사적 의미를 지닌 건축물로서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건축 형태 및 양식, 디테일 또는 구조형식 등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근대건축물은 근대화를 상징하는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는 의미가 있으며, 아담스 기념관(1923), 옛 농업시험장(1931), 옛 수원농림학교(1937) 등이 대표적 근대건축물이다. 또한, 한국전쟁이후 50년대의 시대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축형태 및 기술의 가능성을 보인 서울대 농과대학 강당(1957)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학술적 연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2) 재료 및 재질

수원 화성의 건립을 위해 사용된 ‘돌뜨던터(부석소, 浮石所)’와 같이 지역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혹은 근대건축물 양식의 대표적인 재료인 벽돌을 사용하는 등 재료가 지닌 의미를 말한다.

3) 기술 및 기법

기술 및 기법의 가치는 건축시점의 건축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서 옛 수원시청사(1956)에서는 창호 주변틀을 외벽재로와 다른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였으며, 인방 상부에는 꽃봉오리 모양의 장식을 사용하는 등 독특한 기법이 사용되어 당시의 건축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

4) 조형성

조형적 가치는 농천교회 본당(1972)에서와 같이 밀이 터진 돌출 창호의 기하학적 형태가 스테인드글라스와 어울리는 조형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서울대 농과대학 강당(1957)의 독특한 측면 매스형태는 당시의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힘있는 조형적 형태를 지니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는 상징성 또는 대표성, 희귀성, 공공성, 커뮤니티 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6〉 사회적 가치평가의 세부내용

가치기준 항목	세부내용	주요 사례
상징성 및 대표성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또는 상징적인 건축물	수원 광주이씨 월곡댁 (1888)
희귀성	수원지역에서 유일한 건축물	수원화성 및 서북공심돈 (1794)
공공성	공공적 기능 및 역할을 지닌 건축물	옛 수원시청사 (1957)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 및 거점 건축물	평창이씨 동족마을

1) 상징성 또는 대표성

지역을 상징할 수 있거나 지역의 대표적인 특징으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수원 광주이씨 월곡댁(1888)으로서 ‘口’자 배치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 서해안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인 동시에 파장동 일대의 오래된 가옥들이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 지역의 대표적인 가옥 배치형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희귀성

수원에서 유일한 건축물은 수원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수원 화성과 서북공심돈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3) 공공성

건축물의 공공적 기능 및 역할은 도시형태 및 도시구조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를들어 옛 수원시청사(1957)는 이전 수원읍사무소 자리에 신축하였는데, 도시의 성장으로 인해 후면에 크게 중축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내 인계동으로 이전하면서 수원 문화원으로 사용되었다. 수원 시청의 이전으로 도심이 동쪽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도시의 형태 및 구조가 변화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공공적 기능을 지닌 건축물은 보존함으로써 도시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커뮤니티

지역 공동체는 주민들의 연대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건축물들을 가치평가를 말한다. 이에 동족마을의 형성과정을 통해 수원지역의 공동체 형성이 지닌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점점 핵가족화 되는 가족과 해체되는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를 말한다.

5.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는 미래 잠재적 기능, 용도변경, 관광상품 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7〉 경제적 가치평가의 세부내용

가치기준 항목	세부내용	주요 사례
미래 잠재적 기능	미래의 잠재적인 가치 증대가 기대되는 건축물	구천동 공구상가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통한 수익증대 건축물	일본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
관광상품	재생을 통한 관광상품 연계 (산업 및 전통 유산 등)	장준식가옥 (1937)

1) 미래 잠재적 기능

현재는 낡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 가치평가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래에는 그 기능이 사라져 보존할만한 잠재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말한다. 예를들면, 구천동 일대의 공구상가들이 점점 사라짐에 따라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에 그 장소를 기억할 만한 가치를 찾아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용도변경

건립 당시와는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사용함에 따라 수익이 증대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는 산업유산의 기능쇠퇴로 용도변경을 통한 도시재생에 성공 사례로서 일본 동경의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를 보면 맥주를 만들던 공장의 보존과 재생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는 복합시설로 탈바꿈하여 수익이 증대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3) 관광상품

역사적 건축물의 관광상품화는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평가로서 건축물 자체 또는 보존이나 재생 등의 방

법을 통해 지속적 이용을 가능케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장준식 감독(1937)은 신상옥 감독, 최은희 주연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촬영장소로 활용되어 한국영화사의 중요한 문화유적으로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이다. 하지만, 아직 관광상품으로 연계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6. 도시경관적 가치

도시경관적 가치는 장소성, 경관 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8〉 경제적 가치평가의 세부내용

가치기준 항목	세부내용	주요 사례
장소성	장소적 의미를 지닌 건축물	옛 수원시청사 (1957)
경관	경관적 의미를 지닌 건축물 (벗있는 경관 등)	

1) 장소성

장소성에 대한 가치는 기억이나 추억과 같이 장소에 대한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옛 수원시청사(1957) 및 농업진흥청 주변과 서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억과 추억들이 지닌 장소적 의미를 말한다.

2) 경관

경관적 가치는 지역의 대표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절 가치평가 기준의 중요도 분석

본 연구에서 가치평가 기준 설정을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가치평가 기준의 중요도 분석을 위해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하였다.

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1) 일반개요

역사적 건축물의 가치평가 기준설정을 위해 역사적 건축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한정하였다. 전문분야는 역사, 예술·문화, 건축설계,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 행정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각 전문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문화재 전문위원, 건축사, 도시건축 행정사무관 등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지는 2013년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총 30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지의 회수는 11월 15일까지 진행되어 총 28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응답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4-9〉 설문응답의 일반개요

표본	역사적 건축물 관련 분야별 전문가
표본의 수	28부
조사시기	2013.10.21.~2013.11.15. (총25일)
설문지 배포 및 회수	설문조사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지는 이메일 전송 및 회신

2) 표본의 통계적 특성

설문지 회수는 93.3%의 회수율을 보이며, 분야별 전문가는 건축설계 관련 전문가가 많지만, 대체로 고르게 배분된 것으로 보인다.

〈표 4-10〉 분야별 전문가

구분	역사문화재	예술문화	건축설계	도시계획	도시건축행정	계
전문가 수	6	5	9	6	2	28
	(21.4%)	(17.9%)	(32.1%)	(21.4%)	(7.1%)	(100.0%)

전문가의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53.6%), 다음으로 50대가 많아(32.1%), 40-5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5.7%).

〈표 4-11〉 전문가의 연령

구분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전문가 수	3	15	9	1	28
	(10.7%)	(53.6%)	(32.1%)	(3.6%)	(100.0%)

전문분야 근무경력은 전문가의 연령을 비교해 볼 때 15년 이상의 전문분야 경력자가 많으며(60.7%), 대부분 역사적 건축물 관련한 설계 및 리모델링 또는 문화재 관련된 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 이상으로 나타났다(71.4%). 이에 본 연구에 부합하는 연구 데이터로 보인다.

〈표 4-12〉 전문가의 전문분야 근무경력

구분	10년 미만	15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전문가 수	4	7	6	11	28
	(14.3%)	(25.0%)	(21.4%)	(39.3%)	(100.0%)

〈표 4-13〉 전문가의 역사적 건축물 관련 업무경력

구분	경력 무	1년 미만	3년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전문가 수	5	3	7	2	4	7	28
	(17.9%)	(10.7%)	(25.0%)	(7.1%)	(14.3%)	(25.0%)	(100.0%)

2. 설문지 구성

전문가 설문조사 항목은 [표 4-2]를 기준으로 가치평가 예비기준을 선정하여 각 가치평가 기준에 대한 쌍대비교를 실시하였다. 쌍대비교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또한 설문응답 방식은 A 항목이 B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점수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점수차이를 크게 함으로써 중요도의 차이가 분명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표 4-14〉 쌍대비교 예시

기준 항목	A가 B보다 중요					동등	B가 A보다 중요					기준 항목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A	7	6	5	4	3	2	1	2	3	4	5	6	7	B

3. 가치평가 기준의 중요도

본 연구에서 가치평가의 중요도 분석을 위해 계층분석법(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을 사용하였다. AHP는 의사 결정 지원방법의 하나로써 Thomas L. Satty가 1980년 발표한 동명의 논문에서 처음 제창되었다³⁹⁾.

AHP는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단계로 구분하여 위계를 설정하고 위계별로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를 방법으로 각 평가요소의 가중치를 산정할 때 더 없이 좋은 도구이다.

본 연구에는 가치평가 기준을 계층적으로 분류하고 가치평가 상호간의 쌍대 비교를 통해 중요도를 분석하였으며, Microsoft Office Excel을 활용하여 다음의 비교행렬의 중요도를 계산하였다.

1) 가치평가 기준의 중요도

가치평가 기준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로서 역사적 가치(0.324)>건축적 가치(0.272)>문화적 가치(0.163)>경제적 가치(0.127)>도시경관적 가치(0.064)>사회적 가치(0.05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5〉 가치평가 기준의 중요도

분류	중요도	분야별				
		역사 문화재	예술 문화	건축설계	도시계획	도시행정
역사적 가치	0.324	0.324	0.281	0.327	0.324	0.392
문화적 가치	0.163	0.158	0.130	0.180	0.154	0.111
건축적 가치	0.272	0.262	0.233	0.264	0.292	0.198
사회적 가치	0.051	0.057	0.081	0.049	0.043	0.060
경제적 가치	0.127	0.145	0.187	0.113	0.119	0.130
도시경관적 가치	0.064	0.056	0.088	0.049	0.068	0.110
CI*	0.040	0.054	0.030	0.048	0.054	0.057

* CI (Consistency Index, 일치성 지수) : 설문자가 얼마만큼의 일관성을 가지고 응답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질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을수록 CI지수는 낮아진다. 통상 CI지수가 0.1이상이면 설문자의 응답을 신뢰할 수 없다.

39) 위키백과 참조 (<http://ko.wikipedia.org>)

분야별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중요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비슷한 견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사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를 중요한 가치평가로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 가치 및 도시경관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도시행정 전문가들이 다른 전문가들과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문화적 가치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경제적 가치와 도시경관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현장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가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 역사적 가치의 중요도

역사적 가치는 역사적 사실배경, 역사적 인물관련, 건축 경과년도 등으로 세분되며, 중요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6〉 역사적 가치의 중요도

분류	중요도	분야별				
		역사 문화재	예술 문화	건축설계	도시계획	도시행정
역사적 사실배경	0.214	0.212	0.193	0.0218	0.201	0.246
역사적 인물관련	0.078	0.075	0.066	0.071	0.088	0.104
건축 경과년도	0.033	0.037	0.022	0.038	0.036	0.041
CI	0.056	0.039	0.081	0.072	0.064	0.062

역사적 가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모두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역사적 사실배경(0.214)>역사적 인물관련(0.078)>건축 경과년도(0.033)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세부적인 중요도 역시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3) 문화적 가치의 중요도

문화적 가치는 전통성, 문화적 정체성, 예술성, 교육성, 종교성 등으로 세분되며, 중요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7〉 문화적 가치의 중요도

분류	중요도	분야별				
		역사 문화재	예술 문화	건축설계	도시계획	도시행정
전통성	0.061	0.067	0.041	0.062	0.051	0.053
문화적 정체성	0.053	0.048	0.038	0.059	0.056	0.031
예술성	0.027	0.024	0.029	0.032	0.027	0.013
교육성	0.014	0.012	0.016	0.017	0.012	0.006
종교성	0.008	0.007	0.006	0.009	0.008	0.008
CI	0.093	0.103	0.050	0.092	0.090	0.102

문화적 가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중요도가 다소 낮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전통성(0.061)>문화적 정체성(0.053)>예술성(0.027)>교육성(0.014)>종교성(0.008)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세부적인 중요도 역시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4) 건축적 가치의 중요도

건축적 가치는 학술성, 재료 및 재질, 기술 및 기법, 조형성 등으로 세분되며, 중요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8〉 건축적 가치의 중요도

분류	중요도	분야별				
		역사 문화재	예술 문화	건축설계	도시계획	도시행정
학술성	0.136	0.135	0.111	0.136	0.145	0.046
재료 및 재질	0.049	0.044	0.029	0.045	0.057	0.044
기술 및 기법	0.051	0.042	0.064	0.043	0.054	0.064
조형성	0.036	0.040	0.028	0.040	0.036	0.044
CI	0.029	0.072	0.046	0.074	0.028	0.803

건축적 가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중요도가 높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학술성(0.136)>기술 및 기법(0.051)>재료 및 재질(0.049)>조형성(0.036)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술성을 제외한 다른 가치의 중요도는 거의 유사하며, 도시행정 전문가의 경우에는 건축적 가치의 세부적인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사회적 가치의 중요도

사회적 가치는 상징성, 희귀성, 공공성 등으로 세분되며, 중요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9〉 사회적 가치의 중요도

분류	중요도	분야별				
		역사 문화재	예술 문화	건축설계	도시계획	도시행정
상징성	0.027	0.030	0.034	0.027	0.021	0.034
희귀성	0.012	0.015	0.022	0.009	0.013	0.015
공공성	0.007	0.007	0.015	0.008	0.005	0.006
커뮤니티	0.004	0.004	0.011	0.005	0.003	0.005
CI	0.094	0.113	0.063	0.038	0.210	0.061

사회적 가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중요도가 상당히 낮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상징성(0.027)>희귀성(0.012)>공공성(0.007)>커뮤니티(0.004)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경제적 가치의 중요도

경제적 가치는 미래 잠재적 기능, 용도변경, 관광상품 등으로 세분되며, 중요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가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소 낮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미래 잠재적 기능(0.079)>관광상품(0.031)>용도변경(0.017)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치성 지수는 상당히 낮아 설문데이터가 일관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경제적 가치의 중요도

분류	중요도	분야별				
		역사 문화재	예술 문화	건축설계	도시계획	도시행정
미래잠재적 기능	0.079	0.097	0.121	0.068	0.065	0.083
용도변경	0.017	0.023	0.019	0.012	0.017	0.019
관광상품	0.031	0.025	0.047	0.033	0.037	0.028
CI	0.000	0.002	0.005	0.013	0.042	0.002

7) 도시경관적 가치의 중요도

도시경관적 가치는 장소성과 경관 등으로 세분되며, 중요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4-21]

도시경관적 가치에 대해 대부분 전문가들이 중요도가 상당히 낮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장소성(0.044)>경관(0.020)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도시경관적 가치의 중요도

분류	중요도	분야별				
		역사 문화재	예술 문화	건축설계	도시계획	도시행정
장소성	0.044	0.029	0.068	0.047	0.048	0.058
경관	0.020	0.027	0.020	0.019	0.020	0.053
CI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8) 소결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의 가치평가 기준 설정에 있어서 역사적 가치, 건축적 가치, 문화적 가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가치는 다소 중요도가 낮고, 도시경관적 가치 및 사회적 가치는 상당히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평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역사적 사실배경, 건축학적 학술성, 미래의 잠재적 기능, 역사적 인물관련성, 문화적 전통성 등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2〉 가치평가 기준 설정 및 중요도 (종합)

분류	중요도	가치기준 항목	중요도	비고
역사적 가치	0.324	역사적 사실배경	0.214	
		역사적 인물관련	0.078	
		건축 경과년도	0.033	
문화적 가치	0.163	전통성	0.061	
		문화적 정체성	0.053	
		예술성	0.027	
		교육성	0.014	
		종교성	0.008	
건축적 가치	0.272	학술성	0.136	
		재료 및 재질	0.049	
		기술 및 기법	0.051	
		조형성	0.036	
사회적 가치	0.051	상징성	0.027	
		희귀성	0.012	
		공공성	0.007	
		커뮤니티	0.004	
경제적 가치	0.127	미래잠재적 기능	0.079	
		용도변경	0.017	
		관광상품	0.031	
도시경관적 가치	0.064	장소성	0.044	
		경관	0.020	

제4절 역사적 건축물 가치평가 기준 검증

1. 역사적 건축물 가치평가 기준 검증 개요

역사적 건축물의 가치평가가 적절한지 확인 및 검증을 위해 역사적 건축물을 대상으로 파일럿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도구는 기존 전문가 설문에 활용되었던 가치평가 기준(표 4-2)을 활용하였으며, 평가자는 기존 전문가 설문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중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기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이유는 본 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장점을 보이기 때문에 기존 전문가 중 5인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였다. 평가는 2013년 11월 28일 실시하였으며, 총 6개의 역사적 건축물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표 4-23〉 파일럿 평가의 일반개요

파일럿 평가 표본	역사적 건축물 6종 선정
평가위원 선정	기존 전문가 중 역사, 문화, 예술, 건축, 도시 분야 1인씩 총 5인 선정
평가 일시	2013.11.28.

2. 역사적 건축물 평가대상 선정

역사적 건축물의 평가 표본은 지정 문화재와 미지정 문화재를 선정하여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 도구로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토하였으며, 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4-24〉 역사적 건축물 평가 표본

구분	유적명	소재지	유형	시대	비고
1	아담스기념관	팔달구 수원천로 342	근대건축	근대	경기도지정문화재 제175호
2	옛 수원시청사	팔달구 매산로 119	근대건축	근대	수원시 향토유적 제18호
3	옛 부국원 건물	팔달구 향교로 130	근대건축	근대	수원시 향토유적 제19호
4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권선구 서호서로 58	근대건축	근대	
5	장준식 가옥	팔달구 남창동 24-1	고가	근대	
6	유시환 가옥	권선구 서둔동 121-2	고가	근대	



〈그림 4-2〉 평가대상 및 위치도

3. 가치평가 검증 결과

1) 역사적 가치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평가결과 옛 수원시청사>아담스 기념관>서울대 농생명과학대>옛 부국원>장준식가옥>유시환가옥 순으로 나타났으며, 역사적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립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으로 보이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기록이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옛 수원시청사 건물은 수원시의 승격으로 건립된 건축물로 수원시의 역사적 흔적이 건축물 자체에 남아 있으며, 다양한 문헌에서 수원시청사의 상징적 의미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아담스기념관의 경우 삼일학원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건축물로서, 삼일학원 보유자료 및 다양한 문헌자료를 통해 그 역사적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도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옛 수원농림학교는 현재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 부지로서 대한제국시절 고종의 칙령에 의해 건립된 역사적 사실과 수원의 농업특성화 도시로 성장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옛 부국원, 장준식가옥, 유시환가옥은 상대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낮게 나왔는데 이는 건립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측면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시환가옥은 그 역사적 가치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건축물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는 점을 통해 역사적 보존 가치의 세부내용은 연구목적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25〉 역사적 가치 평가 결과

구분	유적명	역사적가치 평가결과		
		역사적 사실배경	역사적 인물관련	건축 경과년도
지정 문화재	아담스기념관	역사적 사실배경	15.76	22.72
		역사적 인물관련	4.52	
		건축 경과년도	2.44	
	옛 수원시청사	역사적 사실배경	17.04	23.14
		역사적 인물관련	3.59	
		건축 경과년도	2.51	
	옛 부국원 건물	역사적 사실배경	12.78	18.25
		역사적 인물관련	2.96	
		건축 경과년도	2.51	
미지정 문화재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역사적 사실배경	15.76	21.90
		역사적 인물관련	3.90	
		건축 경과년도	2.24	
	장준식 가옥	역사적 사실배경	13.21	17.58
		역사적 인물관련	4.37	
		건축 경과년도	2.44	
	유시환 가옥	역사적 사실배경	5.96	10.27
		역사적 인물관련	1.87	
		건축 경과년도	2.18	

2) 문화적 가치

문화적 가치에 대한 평가결과는 옛 수원시청사>장준식가옥>서울대 농생명 과학대>아담스 기념관>옛 부국원>유시환가옥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 가치를 평가할 때 한옥과 같은 우리 고유문화의 전통성과 문화적 정체성 등이 중요한 보존 가치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문화적 가치 평가 결과

구분	유적명	문화적 가치 평가결과		
지정 문화재	아담스기념관	전통성	2.56	8.38
		문화적 정체성	3.29	
		예술성	1.13	
		교육성	0.92	
		종교성	0.48	
	옛 수원시청사	전통성	2.93	9.37
		문화적 정체성	3.92	
		예술성	1.19	
		교육성	0.95	
		종교성	0.38	
	옛 부국원 건물	전통성	2.56	7.96
		문화적 정체성	2.86	
		예술성	1.57	
		교육성	0.62	
		종교성	0.35	
미지정 문화재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전통성	2.32	9.07
		문화적 정체성	3.92	
		예술성	1.51	
		교육성	0.92	
		종교성	0.40	
	장준식 가옥	전통성	3.54	9.30
		문화적 정체성	2.97	
		예술성	1.51	
		교육성	0.90	
		종교성	0.38	
	유시환 가옥	전통성	1.59	4.43
		문화적 정체성	1.48	
		예술성	0.59	
		교육성	0.59	
		종교성	0.18	

수원시청사는 역사적 가치와 함께 문화적 가치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장준식가옥은 전통적인 한옥의 형태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아담스 기념관 및 옛 부국원은 건축물의 형태로 인해 근현대사를 엿볼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시환가옥의 경우 한옥임에도 불구하고 원형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형 되었으며, 유지관리 상태 부실로 인해 문화적 가치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적 의미, 특히 전통 문화로서의 의미를 지닌 건축물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는 점을 통해 문화적 보존 가치의 세부내용은 연구목적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건축적 가치

건축적 가치에 대한 평가결과는 서울대 농생명과학대>장준식가옥>옛 부국원>아담스 기념관>옛 수원시청사>유시환가옥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축적 가치를 평가할 때 학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농생명과학대는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이전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채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인접한 강당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장준식가옥은 도시형 한옥의 건축적 형태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옛 부국원과 아담스 기념관 및 옛 수원시청사 건물은 수원에 얼마 남지 않은 근대건축물로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유시환가옥은 건축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근대건축물 및 한옥은 보존할 만한 건축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건축적 보존 가치의 세부내용은 연구목적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27〉 건축적 가치 평가 결과

구분	유적명	건축적 가치 평가결과		
지정 문화재	아담스기념관	학술성	7.89	14.35
		재료 및 재질	2.35	
		기술 및 기법	2.24	
		조형성	1.87	
	옛 수원시청사	학술성	7.07	13.19
		재료 및 재질	2.06	
		기술 및 기법	2.04	
		조형성	2.02	
	옛 부국원 건물	학술성	8.16	14.84
		재료 및 재질	2.35	
		기술 및 기법	2.24	
		조형성	2.09	
미지정 문화재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학술성	8.16	15.12
		재료 및 재질	2.35	
		기술 및 기법	2.45	
		조형성	2.16	
	장준식 가옥	학술성	7.89	14.95
		재료 및 재질	2.45	
		기술 및 기법	2.45	
		조형성	2.16	
	유시환 가옥	학술성	3.54	7.66
		재료 및 재질	1.67	
		기술 및 기법	1.73	
		조형성	0.72	

4)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결과는 옛 수원시청사>서울대 농생명과학대>아담스 기념관>장준식가옥>옛 부국원>유시환가옥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때 상징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사회적 가치 평가 결과

구분	유적명	사회적 가치 평가결과		
지정 문화재	아담스기념관	상징성	1.46	2.72
		회귀성	0.58	
		공공성	0.46	
		커뮤니티	0.22	
	옛 수원시청사	상징성	1.89	3.54
		회귀성	0.79	
		공공성	0.55	
		커뮤니티	0.31	
	옛 부국원 건물	상징성	1.24	2.48
		회귀성	0.53	
		공공성	0.45	
		커뮤니티	0.26	
미지정 문화재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상징성	1.67	3.16
		회귀성	0.67	
		공공성	0.52	
		커뮤니티	0.30	
	장준식 가옥	상징성	1.51	2.63
		회귀성	0.50	
		공공성	0.29	
		커뮤니티	0.33	
	유시환 가옥	상징성	0.59	1.20
		회귀성	0.26	
		공공성	0.20	
		커뮤니티	0.15	

옛 수원시청사 및 서울대 농생명과학대는 그 상징적 의미가 수원시 차원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아담스 기념관은 교육 및 종교적 의미로서, 장준식가옥은 영화사적 의미로서, 옛 부국원은 농업사적 의미와 개인적인 차원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로 인해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사회적 보존 가치의 세부내용은 연구목적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결과는 서울대 농생명과학대>옛 수원시청사>옛 부국원>아담스 기념관>장준식가옥>유시환가옥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상징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옛 수원시청사 및 옛 부국원 등은 미래의 잠재적 기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장준식가옥은 영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촬영장소로서 중장년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유시환가옥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가치증대를 통해 경제적 가치평가의 세부내용이 평가된다는 점에서 연구목적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29〉 경제적 가치 평가 결과

구분	유적명	경제적 가치 평가결과		
		미래 잠재적 기능	용도변경	관광상품
지정 문화재	아담스기념관	미래 잠재적 기능	4.11	6.58
		용도변경	0.61	
		관광상품	1.86	
	옛 수원시청사	미래 잠재적 기능	5.85	8.78
		용도변경	0.88	
		관광상품	2.05	
옛 부국원 건물	미래 잠재적 기능	5.06	8.16	
	용도변경	0.99		
	관광상품	2.11		
미지정 문화재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미래 잠재적 기능	5.69	8.95
		용도변경	1.09	
		관광상품	2.17	
	장준식 가옥	미래 잠재적 기능	5.53	6.45
		용도변경	0.92	
		관광상품	2.05	
	유시환 가옥	미래 잠재적 기능	2.53	4.95
		용도변경	0.37	
		관광상품	0.74	

6) 도시경관적 가치

도시경관적 가치에 대한 평가결과는 옛 수원시청사>서울대 농생명과학대>아담스기념관>장준식가옥>옛 부국원>유시환가옥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상징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옛 수원시청사는 수원읍사무소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음으로 인해 수원의 행정 중심지라는 장소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수원역으로 연결되는 가로변에 직접 면한 근대건축물로서 가로경관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부지 전체가 지니고 있는 장소적 의미와 향

후 활용기대감으로 인해 높은 장소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아담스 기념관은 삼일학원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장소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장준식가옥은 도시형 한옥으로서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장소적 의미와 경관에 대한 평가로 인해 도시경관적 가치평가의 세부내용은 연구목적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30〉 도시관광적 가치 평가 결과

구분	유적명	도시경관적 가치 평가결과		
		장소성	경관	합계
지정 문화재	아담스기념관	장소성	3.34	4.26
		경관	0.92	
	옛 수원시청사	장소성	3.78	4.90
		경관	1.12	
	옛 부국원 건물	장소성	2.38	2.38
		경관	1.52	
미지정 문화재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장소성	3.17	4.57
		경관	1.40	
	장준식 가옥	장소성	2.38	3.78
		경관	1.40	
	유시환 가옥	장소성	2.20	2.64
		경관	0.44	

7) 평가 종합

파일럿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옛 수원시청사>서울대 농생명과학대>아담스 기념관>장준식가옥>옛 부국원>유시환가옥 순으로 가치의 순위를 정할 수 있다.

〈표 4-31〉 가치평가 파일럿 평가 결과

분류	지정문화재			미지정 문화재		
	아담스 기념관	옛 수원시청	옛 부국원	서울대 농생대	장준식가옥	유시환가옥
역사적 가치평가	22.72	23.14	18.25	21.90	17.58	10.27
문화적 가치평가	8.38	9.37	9.96	9.07	9.30	4.43
건축적 가치평가	14.35	13.19	14.84	15.12	14.95	7.66
사회적 가치평가	2.72	3.54	2.48	3.16	2.63	1.20
경제적 가치평가	6.58	8.78	8.16	8.95	6.45	4.95
도시경관적 가치평가	4.26	4.90	2.38	4.57	3.78	2.64
총 점	59.01	62.92	56.07	62.77	54.69	31.15

대체로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우수한 평가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미지정 문화재는 다소 순위가 낮게 평가되었으며, 서울대 농생대 부지는 그 동안 가치평가가 저평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생대 부지 전체에 대한 근대건축물 및 현대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1.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 현황

수원시 등록문화재 중 건축물로 한정하면, 국가지정 7종, 경기도 지정 3종, 수원시 지정 6종으로 총 16종의 역사적 건축물이 수원시(권선구, 장안구, 팔달구)에 소재하고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비교적 관리가 잘되어 있으며, 경기도지정문화재와 향토유적의 경우는 관광객을 위한 관람보다는 관리주체가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았다. 수원시 일반 건축물은 총 55,052동이며, 2,940(5.3%)동의 건축물이 5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이상 건축물의 수원시 전체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팔달구에 집중이 되어 있으며, 특히 수원역에서 화성행궁으로 이어지는 매산로와 행궁동 등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간된 마을지와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사한 역사적 건축물의 현황은 전체 65개로 조사되었으며, 멸실이 확인된 건축물만 25건으로 약 13년의 기간 동안 전체의 38.5%가 사라졌다.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동산 개발사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멸실이 확인된 건축물은 가옥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부 건축물들의 주인은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센티브 보다는 재산권의 제한으로 인하여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건축물에 방문하여 관리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부의 지원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고 있어, 문화재 지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2. 역사적 건축물 가치평가 기준 설정

역사적 건축물의 가치평가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선행연구의 건축물 보존가치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지만 정리하면, 역사와 문화적 가치, 건축과 예술적 가치, 사회·경제적 가치, 도시맥락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문화적, 건축적, 사회적, 경제적, 도시경관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분류에 따른 가치에 대해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예를 들면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배경, 인물관련, 경과년도를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마련한 기준은 역사, 예술, 문화, 건축, 도시계획 및 건축도시 행정 사무관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항목별 쌍대비교를 통하여 중요도를 도출하고, 가중치 설정하는데 활용하였다. 분야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역사적 가치 > 건축적 가치 > 문화적 가치 > 경제적 가치 > 도시경관적 가치 > 사회적 가치 순으로 나타났다. 역사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김성조 외(2012)의 연구결과에서 밝힌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가치평가 기준 및 항목을 설정하는데 있어 나타난 차이로 보인다. 두 연구에서 모두 역사성이 높게 나타났고 또한 상징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상징성을 대표성과 상징성이라는 항목으로 건축적 가치에 포함하였으며, 김성조 외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로 분류하여 나타난 차이로 판단된다.

역사적 건축물 가치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원시내 역사적 건축물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전문가들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지정문화재와 미지정 문화재를 3개씩 표본으로 추출하여 진행하였다. 대체적으로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평가 결과가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서울대 농생대 부지의 건축물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서울대 농생대 부지의 근현대건축물들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가치평가 기준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평가(Pilot test)를 진행하여 결과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가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지적한 세부기준을 좀더 정밀하게 보완하고 표본의 크기와 합리적 추출을 통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 건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정책적 제언

1.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 DB구축

역사문화 환경 중에서 건축물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유산으로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장소형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수원시에는 등록문화재를 포함하여 근현대 건축문화 유산이 산재하여 있다. 등록되지 않았지만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으며, 향후 활용가치가 높은 자원들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2000년에 발간된 수원시 역사와 문화유적 보고서에 나타난 건축문화유산이 상당부분 멸실되어 있었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보존이 필요하며,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역사적 건축물 가치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수원시 건축문화 유산에 대한 DB구축이 필요하다. 역사적 건축물 DB구축은 향후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역사적 건축물 대상을 선정하는 의사결정에 활용이 가능하다.

2. 수원시 문화유산 발굴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등록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미래문화유산 찾기를 수행하였다. 시민들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또는 동네에 오래되어 그러한 의미가 공유 가능한 유산 및 생활문화 유산 등 시설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다. 시민들과 문화유산 찾기는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시는 역사문화도시로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매년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시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고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 건축문화 유산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문화유산 찾기 사업이 필요하다.

3. 수원시 문화유산 활용방향

역사적 건축물을 포함하는 문화유산은 우리들의 삶속에서 세대가 거듭되면서 그 가치가 더해진다. 유럽 도시들의 경우 일찍이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원을 도시재생에 활용하였으며, 우리시의 경우도 역사문화자원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수원시 문화유산을 시민들과 함께 찾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 활용방안 또한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원도심의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들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의 검토가 요구되어 진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근대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 보고서, 문화재청, 2006
- 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 김경현, 김세용, 2012, “근대 역사 문화지 및 건축물 보존과 활용방안,”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32(2): 209-210
- 김동식, 2006,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일본 교토시 근대건축을 중심으로,” 농촌건축: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8(3): 91-100
- 김동식, 김태영, 2002, “근대건축문화재의 보전 및 관리현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12): 127-134
- 김성조·김영태, 2011, “근대건축 문화유산의 보전가치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연합회, 2011(1): 7-10
- 김윤희, 2008, 상하이-놀라운 번영을 이끄는 중국의 심장, (주)살림출판사
- 김정동, 2002, “근대문화유산 등록제도’의 첫걸음,” 대한건축학회, 46(5): 8-9
- 김정동·이상희, 2011,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대전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 근대건축물 현황 조사와 가로 경관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연합회논문집, 13(4): 11-20
- 김정호, 2010, “근대 건축물 보존·활용을 통한 복합문화 공간계획 : 등록문화재 제18호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건축도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민, 1998, “역사적 건축물이 지니는 가치규범에 관한 연구,” 공업기술연구원, 1998(8): 85-101
- 김흥기, 2007, “독일산업 기술문화재로서의 폐광산 재생 사례 연구: 줄페어라인 광산 및 코크스 제조소 재생 계획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23(12):205-213
- 김흥기, 2011, “친환경 교육시설로 재활용된 근대건축물 재생사례 분석: 미국

- 오레곤 주 포틀랜드 화이트 스택 블록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9(1): 47-57
- 민현식, 2008, “어떻게 서울 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할 것인가,” SDI 정책리포트, 26: 1-18
- 박근수, 2003, “한국근대건축물의 보전관리지침 구성방안 연구: 개화기~1950년까지 건립된 지정 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명지대학교 건축공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종혜·신경주, 2013,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고찰,”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5(1): 112-115
- 박철희, 2012,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 활용에 대한 민간비영리조직(NPO)의 활동 분석 및 과제: 미국의 히스토리릭 보스턴사(HBI)의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3(6): 137-157
- 성기민·민현준, 2007, “한국 근·현대 역사적 건축물의 복원 및 재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7(1): 257-260
- 수원시, “수원 근현대사 증언 자료집 II”, 2002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중편, 문화의 보고 수원”, 1997
- 이상흠·김진균, 2005, “역사적 건축물의 리노베이션 시에 나타나는 새로운 속성들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5(1): 207-210
- 이완건·박언곤, 2005, “도심지 근대건축물의 보존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시 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3): 63-72
- 이주형·장석하, 2006, “한국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3): 107-115
- 정이순·정량부, 2005, “근대건축물의 보전을 위한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부산의 현존건축물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창립60주년기념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5(1): 217-274
- 홍순연, 2009, “근대 건축유산의 보전가치에 따른 활용방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순연·김기수, 2008, “부산지역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사례에 나타난

- 특성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지연합회, 10(3): 35-46
- 황선옥·김정신, 2005, “역사적 건축물의 재사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5(1): 187-190
- James M. Fitch, printing, Charlottesville: Th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82, 『Historic Preservation: Curatorial Management of the Built World』
- PMG 지식연구소, “시사 상식 바이블”, 박문각, 2008

문화재청 홈페이지

- 수원시 통계자료, <http://stat.suwon.go.kr>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아세아시멘트 수원공장 홈페이지
- 위치백과 홈페이지

영문요약(Abstract)

The modern era is a period that serves as a medium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This period provides important data for the studies of modern culture based on cultural and social changes prior to Korea's period of enlightenment. This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is also an ideal resource for individuals to establish their self-identity and regional identity, and is highly valuable as a regional resource, culturally and for tourism, in the contemporary era. Starting from the city's formation, Suwon has been imbued with history, from the modern to the contemporary era. These historical memories are, one by one, disappearing from our attention, and we should be seriously concerned that the stepping stones of our history, which should be passed down to our future generations, are slowly disappearing.

Based on this recogn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historical buildings of Suwon City and establish standards for evaluating their value to build a database of historical buildings that have stood through the modern and industrialization periods of Suwon's 200-year history.

To this end, based on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defined historical buildings as buildings that include a sense of place, style, and function, which basically reflect the circumstances of a specific period and which have a historicity that can illustrate the given period.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ed values that contribute to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changes in usage and partial repairs, by referring to domestic and overseas cases.

As of July 31, 2013, Suwon City had a total of 60 designated and registered cultural assets, and 16 historical buildings, including seven buildings designated by the nation, three buildings designated by Gyeonggi-do, and six buildings designated by Suwon City. In addition,

Suwon City has 15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assets, including seven buildings that are mainly associated with Hwaseong Fortres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value standards using Suwon's historical buildings and previous studies, this study divided standards to determine the values of historical buildings into the historical (historical facts and backgrounds, historical figures, the building's age), the cultural (traditionality, cultural identity, artistic value, educational value), the architectural (academic value, material and texture, technology and technique, formativeness), the social (symbolism and representative nature, rarity, publicness, community), the economic (future potential functions, usage changes, tourism products), and the urban landscape (a sense of place, landscape) values. In addition, an AHP survey was conducted among experts (architecture, urban planning, history, culture, and arts).

An examination of the importance of each area showed that historical values are most important, followed by architectural, cultural, economic, urban landscape, and social values in order of importance. Based on these values, among Suwon's historical buildings, each three samples were extracted for designated and non-designated cultural assets, and an evaluation committee members evaluated them. As a result, the former Suwon City Hall was considered the most valuable historical building, followed by the Agricultural Life Science Colleg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dams Memorial Hall, the house of Sun-Jik Jang, the former Bugukwon, and the house of Shi-Hwan Yu in order of historical value. Overall, top evaluation results came from designated cultural assets, and non-designated cultural assets ranked low. Of particular note, the value of the site of the Agricultural Life Science Colleg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ad been underestimated thus far.

Therefore, the value of site's modern and contemporary buildings require clarification as cultural assets. A pilot test performed to identify the appropriateness of these evaluation standards confirmed that they are appropriate. However, it also confirmed the necessity to strengthen the size of samples and establish more detailed standards.

Among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buildings are an inheritance closely related to our daily lives, and they serve as the foundation for forming identity and placing individuals. Suwon City is filled with an architectural and cultural inheritance from the modern and contemporary eras, including registered cultural assets. Effective management is also required for resources that are meaningful to us and for those that have strong future utilization values, despite not being registered. In this regard, a database of Suwon's architectural and cultural assets should be established, and Suwon's cultural inheritance should be discovered utilizing evaluation standards for historical buildings. In addition, their various utilization measures should be reviewed.

부 록

〈역사적 건축물 보존가치 설정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 다음은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가치 설정을 위한 예비기준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가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설문작성법 예시]와 같이 질문에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가치 설정기준 (예비기준)

가치기준 분류	가치기준 항목	세부 기준
역사적 가치	역사적 사실배경	역사적 배경이 되는 건축물
	역사적 인물 관련	역사적 주요인물과 관련 있는 건축물
	건축 경과연도	건축 후 50년 이상인 건축물
문화적 가치	전통성	전통문화의 대표적인 건축물
	문화적 정체성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지닌 건축물
	예술성	예술적 독특함을 지닌 건축물
	교육성	체험 등으로 교육적 효과를 지닌 건축물
	종교성	종교적 의미 및 기념비적인 건축물
건축적 가치	학술성	시대 특성을 반영한 양식, 디테일, 구조형식 등
	재료 및 재질	시대 특성을 반영한 재료 및 재질
	기술 및 기법	시대 특성을 반영한 기술 및 기법
	조형성	조형적 의미가 있는 건축물
사회적 가치	상징성 및 대표성	지역의 대표적인 또는 상징적인 건축물
	희귀성	지역에서 유일한 건축물
	공공성	공공적 기능 및 역할을 지닌 건축물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 및 거점 건축물
경제적 가치	미래 잠재적 기능	잠재적인 가치 증대가 가능한 건축물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통한 수익증대 건축물
	관광상품(산업유산 등)	산업유산의 재생을 통한 관광 연계
도시경관적 가치	장소성	장소적 의미를 지닌 건축물
	경관	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Landmark 등)

[설문작성법 예시]

*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측정 예시 - A 항목이 B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짝수 값은 중간값을 나타냄)

기준 항목	A가 B보다 중요						동등	B가 A보다 중요						기준 항목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A	7	6	5	√	3	2	1	2	3	4	5	6	7	B

5. 역사적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위에 제시된 [설문작성법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A	A가 B보다 중요						동등	B가 A보다 중요						B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역사적 사실배경	7	6	5	4	3	2	1	2	3	4	5	6	7	역사적 인물 관련
역사적 사실배경	7	6	5	4	3	2	1	2	3	4	5	6	7	건축 경과년도
역사적 인물 관련	7	6	5	4	3	2	1	2	3	4	5	6	7	건축 경과년도

6. 역사적 건축물의 “건축적 가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위에 제시된 [설문작성법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A	A가 B보다 중요						동등	B가 A보다 중요						B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학술성	7	6	5	4	3	2	1	2	3	4	5	6	7	재료 및 재질
학술성	7	6	5	4	3	2	1	2	3	4	5	6	7	기술 및 기법
학술성	7	6	5	4	3	2	1	2	3	4	5	6	7	조형성
재료 및 재질	7	6	5	4	3	2	1	2	3	4	5	6	7	기술 및 기법
재료 및 재질	7	6	5	4	3	2	1	2	3	4	5	6	7	조형성
기술 및 기법	7	6	5	4	3	2	1	2	3	4	5	6	7	조형성

7. 역사적 건축물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위에 제시된 [설문 작성법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A	A가 B보다 중요						동등	B가 A보다 중요						B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전통성	7	6	5	4	3	2	1	2	3	4	5	6	7	문화적 정체성
전통성	7	6	5	4	3	2	1	2	3	4	5	6	7	예술성
전통성	7	6	5	4	3	2	1	2	3	4	5	6	7	교육성
전통성	7	6	5	4	3	2	1	2	3	4	5	6	7	종교성
문화적 정체성	7	6	5	4	3	2	1	2	3	4	5	6	7	예술성
문화적 정체성	7	6	5	4	3	2	1	2	3	4	5	6	7	교육성
문화적 정체성	7	6	5	4	3	2	1	2	3	4	5	6	7	종교성
예술성	7	6	5	4	3	2	1	2	3	4	5	6	7	교육성
예술성	7	6	5	4	3	2	1	2	3	4	5	6	7	종교성
교육성	7	6	5	4	3	2	1	2	3	4	5	6	7	종교성

8. 역사적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위에 제시된 [설문 작성법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A	A가 B보다 중요						동등	B가 A보다 중요						B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미래 잠재적 기능	7	6	5	4	3	2	1	2	3	4	5	6	7	용도변경
미래 잠재적 기능	7	6	5	4	3	2	1	2	3	4	5	6	7	관광상품
용도변경	7	6	5	4	3	2	1	2	3	4	5	6	7	관광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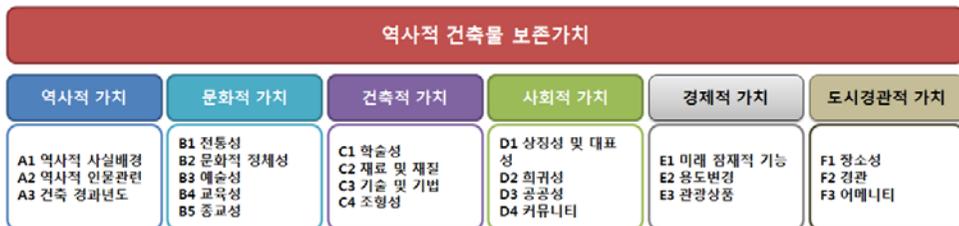
9. 역사적 건축물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위에 제시된 [설문 작성법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A	A가 B보다 중요						동등	B가 A보다 중요						B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상징성 및 대표성	7	6	5	4	3	2	1	2	3	4	5	6	7	희귀성
상징성 및 대표성	7	6	5	4	3	2	1	2	3	4	5	6	7	공공성
상징성 및 대표성	7	6	5	4	3	2	1	2	3	4	5	6	7	커뮤니티
희귀성	7	6	5	4	3	2	1	2	3	4	5	6	7	공공성
희귀성	7	6	5	4	3	2	1	2	3	4	5	6	7	커뮤니티
공공성	7	6	5	4	3	2	1	2	3	4	5	6	7	커뮤니티

10. 역사적 건축물의 “도시경관적 가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위에 제시된 [설문작성법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A	A가 B보다 중요						동등	B가 A보다 중요						B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장소성	7	6	5	4	3	2	1	2	3	4	5	6	7	경관

11. 다음은 최상위 항목인 “역사적 건축물 보존가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최상위 보존가치의 중요도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A	A가 B보다 중요						동등	B가 A보다 중요						B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역사적 가치	7	6	5	4	3	2	1	2	3	4	5	6	7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	7	6	5	4	3	2	1	2	3	4	5	6	7	건축적 가치
역사적 가치	7	6	5	4	3	2	1	2	3	4	5	6	7	사회적 가치
역사적 가치	7	6	5	4	3	2	1	2	3	4	5	6	7	경제적 가치
역사적 가치	7	6	5	4	3	2	1	2	3	4	5	6	7	도시경관적 가치
문화적 가치	7	6	5	4	3	2	1	2	3	4	5	6	7	건축적 가치
문화적 가치	7	6	5	4	3	2	1	2	3	4	5	6	7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	7	6	5	4	3	2	1	2	3	4	5	6	7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	7	6	5	4	3	2	1	2	3	4	5	6	7	도시경관적 가치
건축적 가치	7	6	5	4	3	2	1	2	3	4	5	6	7	사회적 가치
건축적 가치	7	6	5	4	3	2	1	2	3	4	5	6	7	경제적 가치
건축적 가치	7	6	5	4	3	2	1	2	3	4	5	6	7	도시경관적 가치
사회적 가치	7	6	5	4	3	2	1	2	3	4	5	6	7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7	6	5	4	3	2	1	2	3	4	5	6	7	도시경관적 가치
경제적 가치	7	6	5	4	3	2	1	2	3	4	5	6	7	도시경관적 가치

12. 설문 및 연구내용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끝까지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 보존가치 평가 CHECKLIST

가치기준 분류	가치기준 세부항목	세부항목 설명	평가점수
역사적 가치	역사적 사실배경	역사적 배경이 되는 건축물	/10
	역사적 인물 관련	역사적 주요인물과 관련 있는 건축물	/10
	건축 경과연도	건축 후 50년 이상인 건축물	/10
문화적 가치	전통성	전통문화의 대표적인 건축물	/10
	문화적 정체성	수원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지닌 건축물	/10
	예술성	예술적 독특함을 지닌 건축물	/10
	교육성	교육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10
	종교성	종교적 의미 및 기념비적인 건축물	/10
건축적 가치	학술성	시대 특성을 반영한 양식, 디테일, 구조형식 등	/10
	재료 및 재질	시대 특성을 반영한 재료 및 재질	/10
	기술 및 기법	시대 특성을 반영한 기술 및 기법	/10
	조형성	조형적 의미가 있는 건축물	/10
사회적 가치	상징성 및 대표성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또는 상징적인 건축물	/10
	희귀성	수원지역에서 유일한 건축물	/10
	공공성	공공적 기능 및 역할을 지닌 건축물	/10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 및 거점 건축물	/10
경제적 가치	미래 잠재적 기능	잠재적인 가치 증대가 가능한 건축물	/10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통한 수익증대 건축물	/10
	관광상품	재생을 통한 관광상품 연계 (산업 및 전통유산 등)	/10
도시경관 가치	장소성	장소적 의미를 지닌 건축물	/10
	경관	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멋있는 경관 등)	/10

* 항목당 10점만점 기준으로 소수점 한자리까지 채점

〈역사적 건축물 보존가치 평가 대상 선정〉

구분	유적명	소재지	유형	시대	비고
지정 문화재	아담스기념관	팔달구 수원천로 342	근대건축	근대	경기도지정문화재 제175호
	옛 수원시청사(수원문화원)	팔달구 매산로 119	근대건축	근대	수원시 향토유적 제18호
	옛 부국원 건물	팔달구 향교로 130	근대건축	근대	수원시 향토유적 제19호
미지정 문화재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건물	권선구 서호서로 58	근대건축	근대	
	장준식 가옥	팔달구 남창동 24-1	고가	근대	
	유시환 가옥	권선구 서둔동 121-2	고가	근대	

개요	명칭	아담스 기념관		
	대상물 구분	근대건축	용도	종교시설
	소재지	팔달구 수원천로 342	주요구조	벽돌조
	건축경과연도	70년 (1923년 준공)	소유자	삼일학원
	지정문화재	경기도지정문화재 제175호	관리자	삼일학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3년에 건립된 삼일학원의 교사(校舍)로, 미국 아담스교회의 도움을 받아 아담스기념관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 삼일학원은 1903년 미국인 선교사 W. 스웨어러(W. Swearer:1871~1916, 한국명 서원보)가 15명의 소년들을 모아 시작한 교회부설학교로, 수원지방 감리사(監理師)였던 목사 W.A. 노블(W.A. Noble)이 미국 아담스교회의 교인들로부터 건립기금 2만엔을 기부받아 건물을 지었다. • 미국 아담스교회 선교부에서 설계하고, 공사는 중국인 왕영덕(王永德)이 맡았다. 우진각지붕의 2층 벽돌조 양옥으로 현관은 건물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지하층은 거칠게 다듬은 돌로 쌓았고 1층과 2층은 적벽돌로 벽체를 쌓았으며 층간에 목조 마루틀을 설치하여 바닥을 꾸몄다. 지붕은 벽체 위에 목조 트러스를 올리고 널판을 깔아 함석판을 올렸다. • 1988년에 현관과 1층 내부를 수리·보강하였다. 현재 1층은 미술과 특별교실, 방송실, 창고 등으로 쓰고 있으며, 2층은 재단사무실, 지하층은 농구부 실로 사용하고 있다. 재단법인 삼일학원에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다. <p><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p>			
현황 사진				

개요	명칭	옛 수원시청사 (구 수원문화원)		
	대상물 구분	근대건축	용도	
	소재지	팔달구 매산로 19	주요구조	벽돌조
	건축경과연도	57년 (1956 준공)	소유자	수원시
	지정문화재	수원시 향토유적 제18호	관리자	수원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1년 지방자치제도 개정에 따라 기존 수원면이 수원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49년 수원시로 승격되면서 청사건물은 기존의 읍사무소 건물을 사용하였다. 이후 1956년 새청사를 수원읍사무소 자리에 신축하였으며, 1960년대 후반 새로운 청사는 뒤편으로 이전하며 해당 시청사 건물은 수원문화원으로 사용함. • 지상 2층 규모의 벽돌조 건물로 평면은 정방형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지붕은 모임지붕 형태로 시멘트 기와를 이었다. • 가로에 면한 정면 중앙 현관 상부에 캐노피를 설치하고 현관포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 창문은 가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를 보이며, 돌출된 상하인방 및 좌우 샘들은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 벽체와 구분함. • 특히 1층 창호의 상인방에는 꽃봉오리 모양의 장식을 사용하였고, 2층창호의 상인방에는 상하면에 수평 돌림띠를 돌려 장식함. • <출처: 수원시 내부자료 및 “수원시 역사와 문화유적” 참조> 			
현황 사진				

개요	명칭	옛 부국원 건물		
	대상물 구분	근대건축	용도	
	소재지	팔달구 향교로 130	주요구조	벽돌조
	건축경과연도		소유자	민간
	지정문화재	수원시 향토유적 제19호	관리자	민간

특징

- 부국원은 1916년 설립된 회사로 주로 농작물과 종자와 농기구 등을 판매하였다.
- 지상 2층의 벽돌조 건물로 2층 바닥은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었으며, 전면과 후면의 박공벽과 돌출된 구조부가 특징인 건축물임.
- 현재 한솔문화사 건물로 사용중이며, 2층을 개조하여 3층으로 사용
- 건물이 많이 노후되었으나 특별한 개부수 등을 하지 않고 있음.
- <출처: 수원시 내부자료 참조>

현황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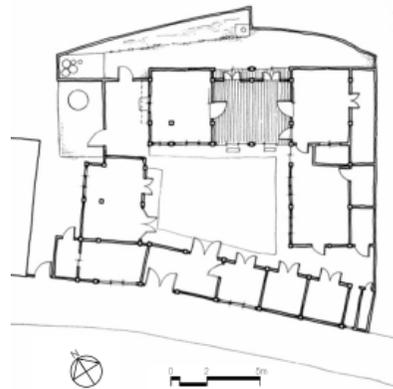
개요	명칭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건물		
	대상물 구분	근대건축	용도	
	소재지	권선구 서호서로 58	주요구조	벽돌조
	건축경과연도		소유자	서울대학교
	지정문화재		관리자	서울대학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농대 전신인 수원고등농림학교는 1906년 9월 농상공학교를 각각 분리함과 동시에 교명을 농림학교라 개칭함. • 1907년 수원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고, 1910년 10월 수원 농림전문학교가 되었다. 이후 1922년 3월 수원고등농림학교가 되어 일본인 학생들과 조선인 학생들이 다니면서 농업연구의 요람이 되어 해방이후 서울농대로서 명맥을 이어갔다. • 2003년 서울농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방치되어 비어있음 • 현재 경기도 주관으로 서울대 농생대 부지 내 근대 건축물 별도 조사 진행 예정 • <출처: 수원시 내부자료 참조> 			
현황 사진				

명칭	장준식 가옥			
	대상물 구분	가옥	용도	
개요	소재지	팔달구 남창동 24-1	주요구조	전통한옥
	건축경과연도	76년	소유자	민간
	지정문화재		관리자	민간

특징

- 1937년 5월 20일 전통한옥으로 지어짐
- 1961년 신상옥 감독, 최은희 주연의 “사랑방손님과 어머니”의 영화촬영 장소로 활용되어 한국영화역사에 중요한 획은 긋는 근대문화유산임
-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사랑채가 따로 구성되어있으나 한쪽으로 지붕이 연결됨
- 안채는 일고주 오량의 겹처마 팔작지붕집으로 한식기와를 올림
- 실은 퇴가 놓인 건넌방-마로-안방-부엌-찬광으로 구성
- 사랑채는 무고주 삼량의 홑처마 팔작지붕집으로 판대공으로 도리를 받침
- <출처: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참조>

현황 사진



개요	명칭	유시환 가옥		
	대상물 구분	가옥	용도	
	소재지	권선구 서둔동 121-2	주요구조	전통한옥
	건축경과연도	77년	소유자	민간
	지정문화재		관리자	민간

특징

- 사랑채의 상량문을 통해 1936년에 지어진 것으로 확인
- 1980년대 전후로 증개축 흔적이 많음.
-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되었으며, 창호는 모두 개조되고, 벽은 시멘트몰탈로 교체됨
- 안마당, 바깥마당, 뒷마당이 모두 있음.
- <출처: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참조>

현황
사진



수원시 역사적 건축물 DB구축 및 가치평가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발행인 손혁재

발행일 2014년 2월 17일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443-810)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비매품 ISBN 979-11-85686-00-4

본 출판물의 판권은 수원시정연구원에 속합니다.

